朝鮮日報
夕刊 三十一日(火)
本紙朝夕刊二十二面

金鶴香油

亳縣城完全占領
沼田部隊鹿邑에肉迫

【亳縣城外三十日發同盟】二十九日亳縣東門의 一角을 占領한 赤柴部隊는 福榮部隊와 서로 呼應하야 高二丈幅一間되는 城壁에依據하고 頑强히 抵抗하는敵과 對峙하기 어며 二十四時間 三十日午後一時二十分 赤柴部隊、栗栖部隊는 一齊히 城內로 突入하야 亳縣을 完全히 占領하엿다

【亳縣城外三十一日發同盟】亳縣에서 敗走한敵을 急追中인 沼田部隊는 三十一日午前七時 이미 亳縣西方六十里의 地點鹿邑에 到達하야 이를 猛攻中이다

敗戰汚名雪辱次
李宗仁再起用說濃厚

【○○三十日發同盟】確實한 情報에依하면 徐州會戰에서 敗戰하고 南方으로 遁走를繼續하야 其後消息을 끊고잇던 第五戰區司令 李宗仁은 安徽省潁州에서 手兵을 糾合하야 白崇禧를 通하야 敗戰의 前後處理에 狂奔하고잇다한다 國民政府가 繼續하는 敗戰을 徐州一戰에서 挽回하려고 蔣介石自身이 鄭州에 進出하야 全軍을 指揮한다고하는現狀에鑑하야 李宗仁에 對한 嚴罰은 此際어떤 名目下에 中止하고 所謂『負罪圖功』의 李宗仁으로하여금 汚名을 雪케하기爲하야 再起用說이 濃厚하게 되엿다하는바 潁州에잇는 李宗仁에對하야 이미 某種의 命令이 發令된것으로 觀測된다 (寫眞은 李宗仁)

義宮殿下 宮城에御歸還

【東京電話同盟】御四歲의御可愛로운신 義宮殿下께서는 去一月二十九日以來 葉山御用邸에 御滯在이시든바 三十一日 小倉事務官以下 御奉供 午前十時五分同御用邸御出門 同十時十八分逗子驛御發御車로 同十一時十八分 東京驛御着 御五個月만에 宮城으로 御歸還하섯다

定例局長會議

總督府定例局長會議는 南總督(忠南出張으로)不在中임에 不拘코 三十一日午前十時부터 十一時半까지 開會되엿는데 席上에서 關係局課長으로부터 如左한 報告가잇섯다

◇大竹內務局長으로부터 六月六日부터 道府의社會主事會議 召集의件과 勞働者需給에關한報告가잇고 또來十三日부터 道土木課長會議를 開催코 道路令等에關하야 討議할旨를 報告하엿다

◇殖産局長代理 西本商工課長으로부터 當面 鑛岩工養成規則이 發表되엿는데 此에依하야 八月과 十二月 年二回로五十名式養成하게된旨의報告가잇섯다

◇宮本法務局長 六月九日부터 三日間 刑務所長 會議를 開催할旨를 報告하엿다

◇警務局長으로부터 北京警察官養成所 講師로 招聘된五名中三名은 六月中歸來하게되고 그後任으로 全北警務課長等이 가게된旨를報告

◇工藤鐵道局長으로부터 最近鐵道運輸가旅客은 一割七分增、荷物은二割八分增 平均二割二分이나增加한旨를 報告하엿다

◇松澤外務部長 北京蒙疆地方에派遣할人選組織이 完成된旨와滿洲地方에서 朝鮮物産 卽賣座談會를 各地에서 進行하고잇는旨를報告

◇山田遞信局長 卅日부터 三日間 海事出張所長 會議開催의 件과 六月부터 第四回愛國國債를 賣出하게되엿는데 朝鮮配定額은 四十五萬圓으로 되엿다는旨를報告

◇學務局長代理 高尾學務課長으로부터 志願入所各道經衛事況과 鮮展에關한 報告가잇섯다

◇水田財務局長 明一日부터 臨時通貨規則이實施되는데 市場에 新通貨가 나오기는 七月頃이 되리라는旨의報告가 엿섯다

◇大野政務總監 最後로 大野總監이 外務部長에對하야 伊太利經濟視察團을 맞으잇는대로 朝鮮에들리게하야 朝鮮과伊太利와의 貿易關係를 緊密히 하엿스면 조켓다는 말과 內務局長에 對하야 勞働者 需給의 不足에 關聯하야 朝鮮婦女의 屋外勞働을 奬勵하는方法을 考究하는것어 어떠냐하는 意見을 開陳하엿다

政務官全部留任

【東京電話同盟】內閣改造에伴하는 政務官의 進退에對하여는新閣僚의 裁量에 一任하엿는데 三十一日 新閣僚政黨出身閣僚風見書記官長間에서 協議한結果 全部留任하기로 決定하엿다

定例閣議

【東京電話同盟】三十一日의定例閣議는 午前十時二十分 首相官邸에서 開催되여 滿洲視察中의 大谷拓相을 除한各閣僚出席한바 杉山陸相으로부터 三十日夜 九州方面에의 敵機飛來에 對하야 西部防衛司令部의 報告에基하야 說明한後 靑木企畫院次長으로부터 支那關稅의 改訂에 關하야 說明이잇슨後 十一時散會하엿다

海事出張所長會議 卅日부터五日間

日支事變勃發에 伴하야朝鮮海運은 益益其重要性을 加하여온데對應하야 其發展及 適正한運營及어에關聯한 諸般問題를 討議하는全朝鮮海事出張所長會議는 三十日부터 六月三日까지 五日間 遞信局會議室에서 開會키로되엿다 第一日의 三十日은 午前九時부터 開會 大野政務總監訓示、山田遞信局長訓示에 뒤이어 山田局長統裁下에 協議를 開始하엿다 主要한 議題는

一、海難防止에關한方策
二、港灣의行政改善
三、造船事業의 發展方策
四、海上國民精神總動員에關한事項
五、海事行政機構의刷新
六、朝鮮海事會의强化方策
七、改正朝鮮船員令의 周知徹底方策

近衛首相 貴院各派代表招待

【東京電話同盟】近衛首相은 三十日午後六時 星岡茶寮에서 貴族院 各派代表 約二十名을 招待하야 種種懇談한後 八時散會하엿다

時事解說
宇垣外交

◇事變의 長期抗戰化에 對備하야 現下의 重要政治를 一元化시킬目的으로 斷行된內閣改造는 各方面의 好評을맞고잇다。特히 新外相으로 戰時外交의 重任을맞고 出馬한 宇垣氏의 登場은 從來 閣僚關係에 新鮮한 一新氣運을 이르킨것이 되엿고 廣田外交에 一期待를 맞고잇는것이 現下의 實情이다。

◇新外相으로 登場한 宇垣大將은 過去에 老練한 軍政家로 政界의 實情에 通曉한 人物이니 新外相으로서의 外交方面에 對한 手腕은 아직 未知數이다。그러나 氏의 外交手腕은 未知數라 할지라도 氏가 多年軍人으로 中央政界에 重鎭으로 地位를 보이는 人物로서 今後의 外交에 不安은 업슬것이라는 觀測이 되고잇다。

◇外相이 更迭되엿다 할지라도 帝國의 外交方針은 依然 不變하나 宇垣外相으로서 第一의 外交方針은 三位一體 外交의 확립을 爲하야 期待되는바이다。昔日 近衛首相의 外交방침에 依하야 從來의 外交를 强力化 하리라고는 宇垣外相의 人物과 經驗에 依하야 期待되는바이다。

◇日支事變에 對하야 第三國의 干涉을 防止하고 이를 對處하는 것이 外交가 생기리라는것은 거의 必至의 情勢로 되여잇는만큼 宇垣外相의 登場은 帝國外交에 活氣와 强力한 活力을 注入할것으로 觀測된다。

三十日의英下院
日支問題로活況

【倫敦三十日發同盟】三十日午後下院質問時間은 繼續하야 日支問題로 活氣를呈하엿는데 特히上海共同租界問題、海關收入問題等에對하야 各議員과 버틀러外務次官과의間에 左와如한 應答이엇섯다

◀日本軍占領地域의交通問題
모리앙氏(保守黨) 日本軍이 共同租界에 隣接하야 楊樹浦에잇서서 英國人이經營하는 電車의 自由交通을 不許하고 同方面의 英國主要工場의操業再開를 阻害하는事實이 잇는데 政府의所見如何

버틀러次官 政府는 日本側에對하야 屢次提言하엿스나 上海의實情은依然한바와가튼狀態이다 더욱勞働者는 他의交通機關을利用하야써 工場地帶를 出入하고잇다

◀上海工部局問題
하우드議員(保守黨) 政府는 日本政府에對하야 虹口楊樹浦 其他 共同租界의 全地區에亙하야 工部局의 當然保有할 統制權을 回復하도록 要求하엿는가

버틀러次官 政府는 昨年十一月 上海에잇서서 戰鬪終結後 모든機會를捉하야 日本政府에 對하야 共同租界에對한 工部局의 統制權을 常態로 復歸시키도록 提議하엿다

하우드議員 政府는 同提議에 關하야 日本政府의回答을 接하엿는가

버틀러議員 아직 回答을 接치못하엿다

◀海關收入問題
아담스議員(勞働黨) 日本側에 引渡된 支那海關收入中 어너程度까지가 日本軍의 軍費에 使用되는가에對하야 何等交涉은 업는가

버틀러次官 아담스議員은 天津海關을 指示하엿으로 思하는데 天津海關收入은 橫濱正金銀行에 預會하기로 되어잇다 이것이어떠케 使用될지는 正確히 豫測할수업다

헐長官의聲明은
米國孤立政策에對한反對烽火
英外交界의觀測

【倫敦三十日發同盟】헐米國國務長官이 二十八日米國의 不戰條約遵守方針은 不動이라는 言明을 聲明한것은 췌코問題를 圍繞한 中歐의 情勢가 險惡化를 傳하고오는이때 多大한 反響을이르키고잇는바 倫敦外交界에서는一般으로 헐長官의 聲明은 歐洲問題에對한 米國政府의 關心을 보이는것이라하야 歡迎하고잇다 右에對하야 하바스通信社는 倫敦外交界의 觀測이라하야 左와如히 述하고잇다

헐長官의聲明은 췌코의 情勢에 刺戟되여 米國이 歐洲問題에 對하야 關心을 가지고 잇는것을 다시금 示現한것이다 但如斯한 聲明이잇다고해서 米國政府가 卽時어떠한 外交行動을取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안는다 헐聲明은 米國의 孤立政策에對한反對의烽火이며 米國과歐洲의 利害가 相互依存하는것을 漸次米國國民에게諒解케하려는것이다

市町村選擧에 주데텐進出顯著

【프라하三十日發同盟】二十九日 췌코各地에서實施된 第二回市町村選擧의結果를三十日開票한바各派의 勢力消長은 去二十二日의第一回選擧와全여 同一한 形勢를보여 주데텐黨은 顯著한 進出相을 보여고잇다 주데텐候補者는 八十九市町村에서 百퍼센트의 當選率을보여고잇고 獨逸系市町村의 平均當選率은 九五퍼센트로 주데텐地方의 議員總數二千五百三名中 當選者一千八百九十七名이라는 好成績이다 이에反하야 獨逸社會民主黨의當選者는 百八十五名으로 겨우現狀을 維持하엿고 췌코 自治派의 當選者는 二十二퍼센트가 減少된것은 興味잇는現象이다

大谷拓相談

【東京電話同盟】大谷拓相은 卅日午後三時 東京驛發特急 쓰바메로 西下渡滿하엿는데 拓相은 車中에서 大要如左히 말하엿다 前略 日滿兩國이 特殊不可分의 關係에엇슴은 勿論으로따라서 滿洲國의 發達은 同時에 我國力의 發展을 意味하야 兩國은 全然 一心同體이다 그러므로 我國의 優秀한 農民이 多數 滿洲國에 移住定着하야 經濟를開發하면 文化를 向上시키고 國礎의 核心이될은 所謂日滿不可分關係를 實質的으로 强化하는 것으로 日滿一體의 根基를 確立하는 所以이다 拓務省에서 取扱한 滿洲農業移民으로 昭和七年第一次부터 昭和十年 第四次까지 移民은 一千八百戶는 所謂 試驗移民이고 繼續하야 昭和十一年度에는 第五次로 一千戶를 보냇는데 모두 豫期以上의 成績을 거두엇다 國策으로 決定된 百萬戶移住計畫도 以上의實績에 비추어 立案한것으로 昨十二年度가 그初年度에 該當하야 集團移民五千戶 自由移民三千人을 보내고 今年度도 이와同數의移住者를 보내게되엿다 이外에 새로計畫된 靑年移民 所謂靑少年義勇軍도 今年度中에 總計三萬人의 大行進을 行하기로되엿는데 大體로 이滿洲農業移民은 자못 多角的性質과 內容을가진것으로 卽具體的으로말하면 滿洲國에서는 五族協和의中核으로서 指導的 地位에서서 그産業開發을 促하고 文化向上과國防充實에 資하는同時에 國內的으로는 政治上社會上의 重大懸案인 我國의 人口問題를解決하야 農村更生의重要因子로 하야 明朗 日本의建設에貢獻하는點이 참으로多大한것이다

취코政府陳謝
獨領侵犯에對해

【프라하三十日發同盟】췌코外務省政治局長 크르노博士는 三十日外務省으로 獨逸公使아이젠롤레르博士의 來訪을 求하야 過般獨逸領內로 不法越境한 췌코飛行機를 各其適宜處罰한 旨를通告하야 獨逸政府의 諒解를 求하는 同時에 獨췌國境에 잇서서의 飛行區域을 從來의 五키로로부터 十키로로 擴大한 點도아울러 通達하엿다

프랑코政權軍
마드리드市砲擊

【마드리드三十日發同盟】人民戰線派의 首都마드리드市에對하야 攻擊을加하는 프랑코軍砲兵隊는 三十日早朝마드리드市內에 對하야 猛烈한砲擊을 約二時間에 亘하야 約百五十의砲彈을 퍼부엇다 右砲擊結果 市民中三名의死者(中小兒二)及 五名의負傷者를 내엿다

子供乗物は
子供三輪車 ¥.3.90
ツヅキ商會
京城南大門前

八面鋒

昨夜子正頃 燈火管制의 實施로 官民一同 大緊張。

◇그러나 싸이렌이 울고 三十分이 지나도 外燈을 안끈 집이 잇섯고、

◇空襲管制와 臨別치 못하야 더러노코 屋內燈까지 끄라 야단친 防護團員이 잇다。

◇모두 訓練의 不足한 所致니 이리하면 정작 空襲을 當할 때에 對處策이 困難할듯。

◇上下一致 防空에 遺憾업기를 期할 일。

◇米 한짝에 四百圓 突破。

◇昨年 이때에 比하면 十一割의 騰貴。

◇諸般物價가 이가티 오르니 이에 對한 處置가 急務。

◇제돈을 드려 施藥을 하던 某老仁術家가 荒唐無稽하다고 警察로부터 驅逐。

◇醫術、卜術、觀相術、모두 사람의 弱點을 잡아 甘言利說을 吐하기 쉬운法。

◇이것을 放置함도 一理、取締함도 一理。

南總督今朝
忠南視察에向發

突然 今三十一日 午前九時二十分 京城驛發列車로 近藤秘書官一人을 帶同하고 忠南道視察途上에 올랏다 今回의視察은 너무도 突然한바로 이日程도 別로 豫定지안코 主로忠南道管內에 잇서서의 地方農村及 敎育狀況 其他時局認識狀況의 實相을把握하려는데잇다 따라서 視察行程도 忠南道當局의 計畫에依하지안코 全여總督自身의 意向에基하야 隨時로進行되여가는대에 特異性이잇다 勿論視察의 目的은 過般京畿道管內視察과가티 敎育令改正志願兵制度實施後에 잇서서의 兩制度의 趣旨를 基調로한精神的方面及 農村振興의 進步狀況의 實態를 率直히把握하고저함에 잇슴은勿論過般의知事會議에서 闡明된施政三大綱領及 警察部長會議에서 闡示된 三信條特히 長期戰認識의 徹底 官民一致의 具體化에 對한 促進을 意味하고地方農村에 至하기까지 산사치內鮮一體及生業報國의 結實에向하야 總督스스로第一線에 나서서 激勵 鞭撻하는곳에 一層意義가 적지안은것이다 如斯히 南總督은 午前十一時十三分成歡驛着 野崎忠南知事、鳥山警察部長等의 案內로 元宮牧場 게마음내키는대로 于先第一코스로서 成歡牧場의視察에向하엿다

官吏制度改正案
三日閣議서決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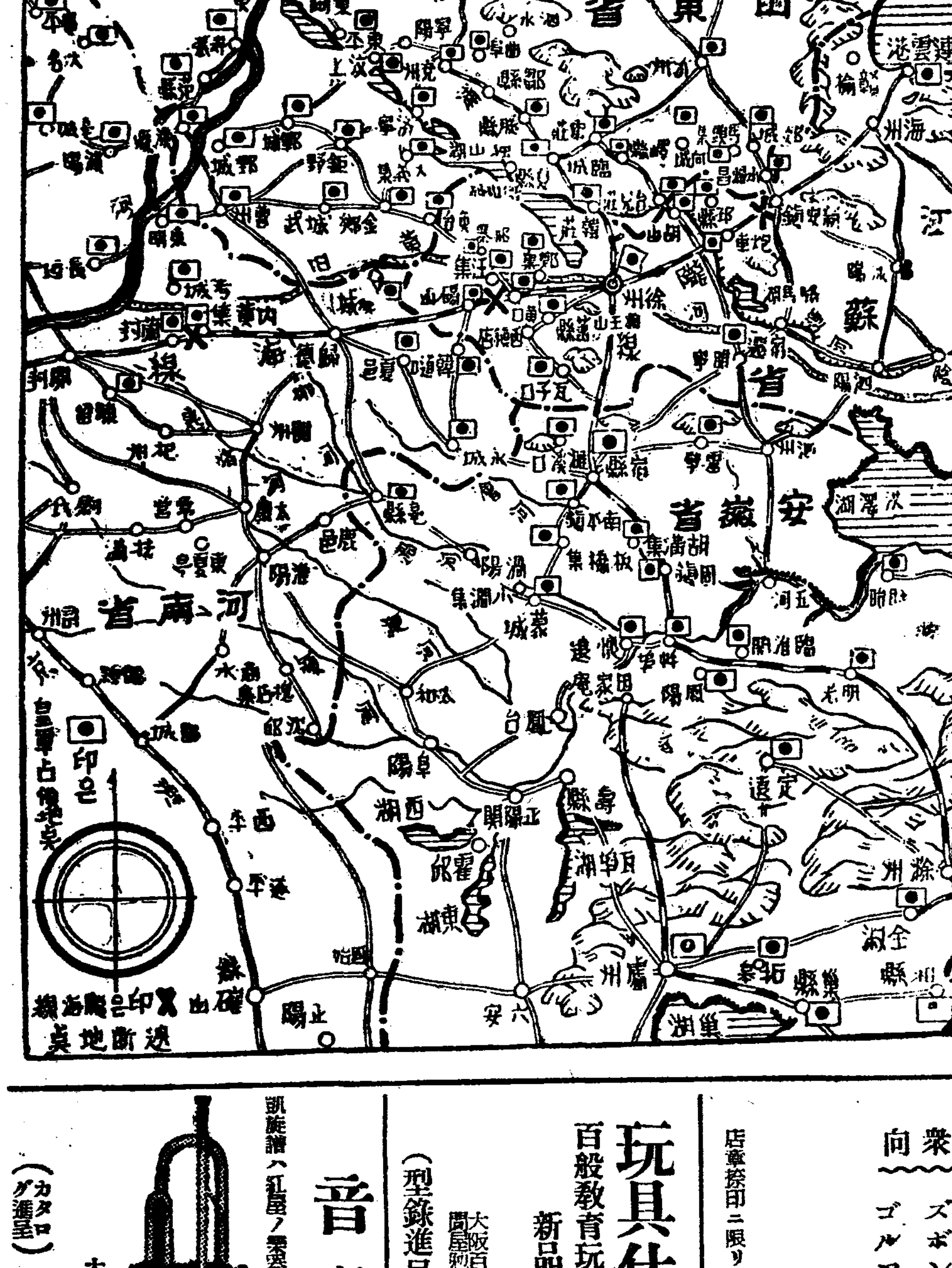
【東京電話同盟】官吏制度改正案은 去二十四日의 定例閣議에서 法制局案을 大體承認하고 三十一日의 定例閣議에서 正式으로 決定한後 樞密院에 御諮詢을豫定이엇는바 內閣改造의結果 船田法制局長官은 三十日 宇垣外相、池田藏相兼商相、荒木文相을 各其訪問하고 右改正에 至하기까지의經過를 詳細히 說明하엿다 그리고 三大臣의意見을 求하기爲하야 三十一日의 閣議上程은 이를中止하고 來三日의 定例閣議에 附議하야 正式決定하기로되엿다

朝鮮民事令改正
◇─宮本法務局長 談

司法省에서 今回民事訴訟法中數條를 改正함에 伴하야 朝鮮民事令의 一部도 改正하기로 決定한後 五月三十一日附總督府官報에 制令第二十號로써 此를發表하고 六月一日부터 施行하기로되엿는데 同令改正理由의 槪略에對하야 總督府宮本法務局長은左와如히 談話를 發表하엿다

今回民事訴訟法中 數條가 改正되엿스므로 이에 伴하야朝鮮民事令의 一部를改正하게되엿거니와 玆에 同令改正理由의 槪略을 申述하야 法律專門家는勿論널리 江湖諸彦의 御理解御關心을 어드려하는바이다。

其改正의(一)主要한點은 同令第二八條에잇서 民事訴訟法中第二三六條第五項及 第六項의 規定은 이를 適用치안키로 規定하엿다。(甲)(1)民事訴訟法 從前의 第二三六條의 規定에 依하면 訴의取下에 對하여는 相對方이 本案에 對하야 準備書面을 提出한境遇 準備手續에 申述한境遇又는 口頭辯論을한境遇는 相對方의 同意를 要하기로 決定되엿스므로 理論은所圓하고 事實上은 相對方에서 取下書에 同意의意思表示를하게 하기爲하야 多少奔走하지안으면 안되엿스나、改正規定의 第六項에 依하면 相對方이取下書又는 取下의意思表示가 記載된口頭辯論期日又는 準備手續期日의 調書謄本의 送達을바든後 三月內에 異議를述하지안는境遇에는取下에 同意한것으로看做하므로右奔走를 要하지안케 되엿스므로 取下方法의 點만으로 보면 多少 手續의 簡易化가 企圖되여잇고 當事者에對하야 얼마큼便宜를 가저올것이나 그러나 同項에依한 取下가 잇섯슴은 相對方에서 諾否를 分明히하지안는限 裁判所는 諸多의點에서所定期間內에 事實上 訴訟行爲를 不得已 停止하기에 이른것인바 民事訴訟法 第二三八條의 境遇와가티 訴訟은 睡眠狀態에 陷하게된다 그리고 (2) 同項三月의期間은 右第二三八條의 三月에 摸倣한것인바 朝鮮에서는 同條가 當事者에 濫用될것을念慮하야 ─事實內地에서는 盛히濫用되고잇다──또한 當事者雙方이 口頭辯論期日에 出頭치안는境遇 또는 出頭하여도 辯論을 하지안는境遇에는 一旦 當事者에게 訴訟遂行의 意思가 업는것으로 推定될에도 不拘하고三月間 訴訟은 睡眠狀態에 置하는것은 適切한 措置가 아니라고 認定하고 朝鮮民事令 第二九條에잇서 右第二三八條에 對한特例를 設하야『當事者雙方이 口頭辯論期日에 出頭치안코又는 出頭하야도 辯論을하지안는때는 裁判長은 다시期日을定하야 當事者雙方을 呼出한다 前項의新期日 又는 其後의期日에 當事者雙方이 出頭치안코 又는 出頭하여도 辯論을 하지안는때는 訴訟이 取下한것으로 看做한』다라 定한것인데 今改正民事訴訟法 第二三六條第六項을 適用할것가트면 右訴訟을 睡眠狀態에두지 안는다는 趣旨와는 一致되지안으므로 朝鮮民事令第二九條와의均衡을失하게될뿐아니라 (3)相對方의不出頭의 口頭辯論期日 又는 準備手續期日에 原告가口頭에依한 訴訟取下의意思表示만을하고 退廷한境遇에는 朝鮮民事令第二九條에該當하게되나 압서말한바와가티 右의取下가잇는境遇 裁判所는 事實上訴訟行爲를 停止하게 될것이므로 裁判所는 다시期日을定하야 當事者雙方을 呼出할수가업스며 其範圍에서는 同條適用의阻止하게되는結果를 招來하게된다 又(4)右의境遇에잇서서 從來의實績에徵하야보면 裁判所는 單獨事件이나 合議事件이나 新期日을定하야 當事者雙方을呼出함을不問하고 廿日程度의期間內에 定한바 其大半은 不出頭하게되여 訴訟은 取下한것으로 看做하고 訴訟의完結을 보게되는것인대 前記第六項의適用後는在來三月의經過를 거다리지안흘수업게되여 訴訟完結의 時期는매우 遲延되게되엿다 加之(5)同項을 適用한즉 前記第二三八條가內地에서 濫用되여 事件의處理上支障을招來하고잇는것과 갓다고는 할수업스나 多分으로惡用될憂慮가잇다 그러므로 朝鮮民事令第二九條의規定을 制定한趣旨를 徹底하게爲하야 右第六項을 朝鮮에서는 適用치안키로하엿다。(乙) 改正民事訴訟法第二三六條第五項은 前叢한第六項의三月의期間의起算上 必要한規定임에 不適合하므로 第六項을適用치안흠 原則下에서는 이와相關된 右第五項의規定을 適用할必要가업는것은 말할것도업다 더욱形式上으로말하면 相對方의 同意를要하고 또는要치안흠時期에 提出한取下書는 이를相對方에 送達하므로 相對方 不出頭의 口頭辯論期日 又는 準備手續期日에 取下意思表示가 엇스면 其期日의 調書의謄本을 相對方에게送達하야 無用한 應訴準備를 하지안케함이 至當한取扱인것가티 생각되지안는것은 아니나 그것은 裁判實相에 抵觸치안혼 觀察方法인줄로 생각한다 왜그러냐하면 (1) 原告가 相對方의 同意를 要치안흠時期에 相對方이 出頭치안는 口頭辯論期日又는 準備手續期日에 잇서 取下意思表示를함은 民事裁判의 實際上其類例가적고 右境遇는訴를 取下치안는다라도 民事訴訟法第一三八條第一四〇條에依하야 勝訴判決을 어들수잇스므로 訴를取下하고도 다시할底意가잇슴境遇에도 黙然判決을求하게된다 (2)때로서는 判決을求치안는 取下를하는일이잇스나 그런境遇에는 거의當事者間에 示談이成立된境遇요 또(3)假令 示談이成立되지못하엿다해도、口頭辯論期日又는 準備手續期日은 極히重要하므로 本人에게 不得已한事故가 엇스면 代理人을出頭시켜어 通常으로 이러한措置를取하지안코 期日을徒過함은訴訟을實施할熱意가업는證左라고 말할수잇다 그러므로 相對方에게 訴訟의取下가잇는事實을 了知케하지안커爲하야 無用한應訴準備를 하게할念慮는 업슬줄로思한다 그리고 以上의觀察은 取下에對하야 相對方의同意를 要할時期에 相對方不出頭의 口頭辯論期日又는準備手續期日에 口頭로써 取下한境遇에도 옴길수잇다。(丙) 玆에留意할것은 控訴取下에對하여는 右第五項의 規定이適用되는點이다 控訴取下境遇는訴訟의 取下境遇와 其事情을 달리하야 被控訴人이 口頭辯論期日又는 準備手續期日에 出頭하지안는事實로 곳訴訟遂行의熱意가업는것으로 할수는업다 왜그러냐하면 被控訴人은 原判決의 勝訴者이므로 原判決의確定으로一日千秋로 待望은할지라도多額의費用과多數의時日을 費하야모처럼 入手한寶물 그대로 버리는것은 通常人의 想像外인까닭이다 控訴取下는 訴訟의如何한 程度임을不問하고 相對方의 同意를얻지안코할수엇고 其意思表示가 裁判所에 到達할時 取下의 效果를 發生하고 玆에 事件은 裁判所로부터 離脫하야 原判決은 確定하게되나 控訴의 取下가書面에 依하야한境遇에 이를相對方에 送達하야 取下의 事實을알게하면 前申한 事情下에엇는 不出頭의 被控訴人에對하야 不出頭期日의 調書謄本을 送達하야 取下한것을 얼리는것이 親切하고 私權實現目的에 取扱上 副하는所以라고 생각하므로 控訴取下境遇는 右第五項의 規定을 準用하기로하엿다 다음은 (二)朝鮮民事令第二五條의削除이다 改正民事訴訟法 第一八七條第二項의 新設에依한 朝鮮民事令第二五條의 特例와 職權에依한 公示送達方道가엇는 結果에엇서 一致하게되엿스므로 論右新設規定은 同令에 比하야 手續上遜色이잇고 立法으로써는 同令이 나은줄로아나 그러나 法則一元化의 大乘的立場에서 裁判所에 手續上多少의 煩瑣는잇더래도 同令第二五條를 削除하고 右新設規定을 依用하기로하엿다 以上外(三)同令의 改正點은民事訴訟法中의 改正部分이 同令의 特例에 近適하므로 特例를 整理하엿슴에 끄치고 特히 말은업다 最後로(四)民事訴訟法改正法律附則第二項規定의 適用인데 朝鮮民事令第一條에 依用되는 民의 附則은 特別한 規定이 업는限그대로 朝鮮에도 適用된다는 解釋이 一致되고 잇스므로 參考삼어말하여둔다。



國産 品質保證
細田商事合資會社
大阪市西區松島町二丁目二四

今 新興からし
冷소면·냉우동 冷豆腐其他여러가지반찬에고초가루
今 新興 蕃椒粉 고초가루
밀국수· 우동 豆腐 其他여러가지반찬의 고초가루
類似品이 만히 잇사오니 商標에 注意하시오
月美人印 カレー からし コシヨ 製造本舖
山西商店　阿部本店　辻本商店　吉川商店　桑田商店　江口商店　山七商會　重枝商店　小野本店　中村商店　德元商店

食料紅 オブラート バター 製菓材料 菓寶香料
商報贈呈
大阪市西淀川區大仁本町二
西本商店

人絹綿布端切各種卸
◎モスリン綿ネル、絹ポプリン、本セル金巾、四綫、朱子、人絹
新規小賣開業者에게는懇切히指導합니다
大阪市南區瓦屋橋東詰大阪南局第三三號函
商報送呈 見本은五十錢要(切手)
國津村合資會社
電話南一二四八 一二九八 振替大阪二三八三番

錢入 袋物現金問屋
廣島屋本店

夏物 羅紗洋服荷揃
大衆向
三ツ揃折衿上下·詰衿上下
ズボン·レインコート·ジャンバー
ゴルフズボン
店章捺印ニ限リ定價表進呈
大阪市東區谷町二丁目十八番地
田中宇商會
電話東三〇三五番

玩具仕入은 一次當店에
百般教育玩具卸問屋
新品在庫品豐富
大阪百貨問屋聯盟會 會員
角木商店
大阪市東區住吉町五十五番地
電話東一五五八 振替大阪五九六〇番
(型錄進呈要三錢)

音樂隊用具
凱旋譜ハ紅屋ノ樂器デ!!世界ノ誇リ!最古ノ歷史!!
大阪市南區日本橋四ノ五四
紅屋樂器店
振替大阪一〇四七三番
(カタログ進呈)

今日午前十一時半頃 警戒警報解除

音響管制만은實施

龍山師團司令部發表 룡산사단관내에는 삼십일일 오전열한시사십분에 경계경보를 해제하엿다

【總督府資源課三十一日午前十一時二十分發表】 방공(防空)실시상 필요에 의하야 금후다음과가티 음향(音響)관제를 실시하기로되엿다

一、「싸이렌」경종등의 음향은 이것을 금지함

一、기적경보와 유사한 음향은 또한 이것을 금지함 교통기관의 사고방지상 발하는것과 기차 기선의 기적은 이것을 관제하지아니함

「싸이렌」混同말고 注意해區別하라

싸이렌의種類는如此

적국의 비행기가 날러올 염려가 잇슬때에는 경계경보(警戒警報)를발령하야 등화관제(燈火管制)를 실시케하며 또적국의 비행기가 날러온다는 정보를바 든 때에는 경계관제로부터 공습관제(空襲管制)로 옴기게하기 위하야 또경보를 해제하게될때에도 발령하게되는데 이것을 시민에게 알리게하는 방법은「싸이렌」을 울리게된다

▲경계경보를 알리는때는 평시(平時)로부터 십초동안 싸이렌을 울리고 그다음에는 삼초동안 쉬며 또 십초동안 울리고서 여러번 그순서로 거듭하야울린다

▲경계관제로부터 공습관제로옴기게되는때에는 싸이렌을 요란스러히 걸게 연속하야 울린다

▲또 공습관제로부터 경계관제로 도루 도라갈때에는 십초동안울리고 칠초동안 쉬엇다가 십초동안울린다 그순서대로 여러번거듭한다

▲경계관제를 해제할때에는 십초동안울리고 칠초동안 쉬고 오분동안 울리게된다

待望의大同工專 今日認可指令

平南道廳에서知事로부터交附 七月一日開校豫定

【平南支社發】숭실전문학교(崇專)가 업서지는 뒤에생기는 대동공업전문학교(大同工專)의인가는 그동안 준비수속때문에 오래동안 시일이 천연되여왓는데 설립자인 재단법인 대동학원(大同學院)과 평남도당국의 노력의결과로 전반수속이 완료되여 이십구일 총독부에서 염원(鹽原)학무국장 이종만씨 그리고 지금경해던 평남 백석(白石)내무부장 무미(武尾)학무과장 등이 협의한후 인가지령을 백석내무부장이 바더가지고 삼십일 평양에도리와다 삼십일일오전중에 동학원대표 이성환(李晟煥)씨와 대동공전의 상무이사로 금번선임된 전경성보성고보교장(前普成高普校長) 김경홍(金)씨등에게 상내(上內)지사가 정식으로 인가지령을 전달교부햇다 인가지령을 바든 대동공전에서는 김경홍씨를 중심으로 개교사무를 개시키로되여 유월중순에 입학시험을 치르기로하고 칠월일일부터 선중전교사의 일부인 싸이엔스홀(科學館)을빌리여 가교사(假校舍)로하고 개교하게되엿다 그런데 개교초년도인 금년에는 광산과(鑛山科) 만 어학급을 모집하기로 되엿스며 신교사는 개교후 기지를 정하는한편 설계에 착수하여명년중에 준공할예정이다

槿花學園寄附 募集增額申請

부내안국정(安國町)삼십칠번지 근화여자실업학교를 경영하는재단법인 근화학원(槿花學園)에서는 그동안 교사가좁아 곤난을격고잇든중 교사증축비로 당국의허가를어더 어만원의 기부를 모집하고잇든중 사변관계로 모집기한인 오는팔월이일까지에 모집이 다될것갓지안흔것과 건축재료가 비싸지게되므로 이번에 기부금모집에정액을 삼만팔천원으로 증액하고 모집기한을 당초보다 어개년늘리어 십오년팔월이일까지 연기하여달나고 삼십일 그허가원을 종로서를거처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엿다 예정대로 기부가모히면 일년이내에 건평이백평의 철근콩크리트이층양옥의 당당한교사가될 것이라고한다

朝鮮古美術만陳列

國寶、逸品等千餘點!

삼십년의 긴역사를가진 창경원(昌慶苑)안의 이왕가박물관(李王家博物館)이 지난삼월이십오일로 문을닷든후 그곳에 진렬되엿든 조선고미술품(古美術品)의 대부분이 대거 덕수궁(德壽宮)안의 신축미술관으로 이사를와서 그간 약이개월간 지금거이 그진렬을 마치고 오는유월오일부터 「이왕가미술관」(李王家美術館)이라는 이름으로 『떼뷰!』하게되엿다

이왕가에서는 일직 왕가와가장 인연이기픈 덕수궁을 영원히 보존하고 아울러 칠십만부민의 낙원지를 만들려고 궁내건물의수리 정원의정비를 마친후 석조전(石造殿)안에 근대일본미술품을 진렬하고 소화팔년시월부터 일반에게 공개하야왓섯는데 미술관을 확장하는동시에 창경원안에잇던 박물관을 이곳에옴겨다가 고미술의 종합진렬관을 만들려고 소화십일년 팔월부터 석조전에 이미술관의 건축을 시작하엿든것이다 신관의진렬도 이삼일안으로 끗마치게되므로 오는유월사일과 다음날인 오일정오까지를 초대일로 정하고 오일오후부터 일반에게 공개하기로하엿다 이로서 일천수백년래의 조선고미술의 정수가 새로운 전당속에 체계잇게 진렬되여 때와자리를만난 국보는 더욱 널리 그진가를발휘할기회를 어든것이다

◇

이번에 신축한 미술관은 근세부흥식(近世復興式)의 화강석(花崗石)과 인조석(人造石)을병용한 삼칭건물인데 총건평이 일천백삼십평이나되는 백아전당(白堊殿堂)으로 그전면에는 분수지까지만드러노흔 당당한 건물이다 이미술관에는 창경원안에잇던 박물관 소장품중에서 조선고미술에 관한것만을 선택진열하게되는데 경성에서 박물관은 최근 총독부당국이 신축계획을 세우고 잇스므로 이왕직에서는 창경원안에잇던 박물관을 업새 고 전기한바와가티 고미술의종합상설진열을 창시하야 조선문화의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미술관은 조선에서 가장진보된시설을 가진것이라고 볼수잇다 신미술관의 진렬개요를보면 이층중앙『홀』에는 지금까지발견된 불상중에서 가장조선미가잇다는 석로만든 석가여래상(釋迦如來像)이잇는데 이것은 일천이백여년전것이라고한다 그다음 고려(高麗)초기것으로 천안(天安)성거산천흥사(聖居山天興寺)에잇던것을 광주(廣州)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옴겻던 청동범종(靑銅梵鐘) 신라말기(新羅末期)것으로 대일여래상(大日如來像)등이잇서 거라 신라, 고려시대의 도자기(陶磁器)이조시대의도자기 삼국(三國)신라, 고려시대의 고와(古瓦)신라 고려 이조시대의 공예품 삼국 신라 고려시대의 불상등이 잇는데 그중에도 상층 제우십에잇든 회화중에는 고려 공민왕(恭愍王)의 친필로된 천산대엽도(天山大獵圖)를 비롯하야 이상좌(李上佐)의 송하보월도(松下步月圖)안견(安堅)의 적벽도(赤壁圖)등사오백년전 그림으로 국보(國寶)라고 일커러오는 그림십여점이 진렬되여잇다 또한 동관의 이, 삼층의 진렬은 특히 일품(逸品)만 천여점을 골라서 충분한 간격을두고 진렬하엿는데 이곳에 진렬치못한 다수의 소장품은 전부 아래층 수장실(收藏室)『캐-쓰』에너어두고특별한 연구자에게는편람을허락하기로되엿다한다 금번 신진렬관 개관을 계기로 석조전안의 근대일본미술조각부문에 걸처 새것을 진렬하게되는데 이상석조전과 신관의 진렬준비등관계로 오월십삼일부터 유월오일정오까지 석조전미술관은 폐관하고 유월사일은 공개치 안키로 결정되엿다

美展入選者中 三名은無鑑査

삼십일총독부에서 발표한 조선미술전람회(美展)입선자중다음의삼씨는 무감사(無鑑査)인것이 잘못되어서 입선자중에 끼엇든 것이라고 전람회 사무당국으로

京義線補强안하면 高速列車運轉不能

調査한結果不良個所가百二十七個所 補强費五十萬圓必要

철도국공무과보선계(工務課保線係)에서는 일년중에 궤도상태가 가장나쁜때를가려서 삼월십팔일부터 사흘동안경의선(京義線)안동(安東)사이의 사백구십구키로에 최고속도시험열차를운전하야 장래고속도 열차의운전을하기위한 대비를 하기로되엿는데 열차의진동기타 여러가지에대하야 열차우에서 측정한 조사가 요지음에 완성되엿다고 결과를보면 진동이가장심하다고 인정되는불량장소는 일백이십칠개처로그가운데서칠십칠개처는 틈이어러잇서기 때문에 궤도가 부풀어오른것이 대부분이고 철로바닥이 물르고 곡선반경(曲線半徑)을 확대시켜야 될것과기타가 그다음인데 열차속도의향상을꾀함에는 불량장소의 보강(補强)개량을 급히해야될 필요를느끼게되엿다 이개량계획가운데서 이미본년도에 시행하기로 결정된것이 약삼만원이며 계획을세워논 개량비가 이십팔만일천오백원이며 새로계획을 하는 것이 이십만팔천원으로되야 결국 경의선사백구십키로사이에초고속도열차를 운전하라면 약오십만원의 선로보강비가 꼭필요하게되엿다한다 이보강공사를 완성하기전에는 『아까쓰끼』가튼 고속도열차를 경의선에도 운전하기를 바랄수 없는 형편이라한다

浸水部落에防疫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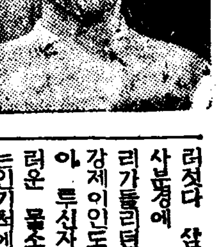
【慶南支社發】금번 경남일대에 나린 호우로말미아마 부산부내에 침수된 가옥일백여호에대하야 부산수상경찰서에서는 혹전염병이나 발생되지안흘가하야방역의 철저를기하고잇다

情婦殺害犯 公判延期

지난 사월초순 부내 창신정(昌信町)내외수점 개성관(開城館)에서 변심한 정부 리순이(李順姬)(二七)를 칼로찔러죽인 유흥수(柳興秀)(三一)에관한 살인피고사건공판은 사월이십삼일에 열릴예정이든것이 연기되여 유월일일에 열리게되엿다

孤獨히苦生타가 漢江投身한青年

요행히 고조를밧고갱생을결심 昨夜人道橋上에서



이세상에 사고무친한 인데리청년이 경계경보의 우렁찬 싸이렌소리를 신호삼아 사바세계를 하직코저 한강인도교상에서 몸을던진 자살극이 버러젓다 삼십일오후십일시 오십삼분경에 경계경보의 싸이렌소리가들리던 그시각에 별안간 한강제이인도교우에서부터 한청년이 투신자살을도모하여 요란스러운 물소리와 『악』 소리를질으는인기척에 한강에서 유선업하는 용금환(湧金丸)주인 고명진(高命振)군과 선부두사람이 시뻘ㅡ는뭍저어가지고 현장에달려가서 물우에 떠올라와잇는청년을구조해내여 곳 철도병원(鐵道病院)에입원시키고 응급치료를 하엿든바 삼십일일 오전두시삼십분경에 겨우 정신이회복되여 자살의 원인과 신원을 알게되엿다 이청년은 원적을 충남논산군논산면주천리(論山郡論山面洙川里)에두고 현재시내미근정(渼芹町)육십번지의심어호에 하숙하고잇는남기갑(南基甲)(二〇)이라는청년으로 지금으로부터이십오년전 세상되엿슬때에 아버지를여이고 그후어머니김씨는 그

自動車와衝突 書店配達夫負傷

작삼십일오후구시오십분경에의주통(義州通)일정목 십오번지에 사는 대판옥호서점(大阪屋號書店)배달부 이한경(李漢慶)(二〇)이 자전거를타고의주통일정목을지나다 구번지 압흘지날제 관동정(館洞町)일백일십번지의이호 조재(曹在)가 운전하는 자동차와 충돌되여 부상되엿스므로 즉시 화천정(和泉町)중천의원(中田醫院)에 입원치료중인데 전치일주일의경상이라한다

不正傳道師團 首犯一名被捉

서내용산서에서는 수일전에기독교전도사일단이 기도로써병을 고친다는 허무한명목으로 금품을 울편취해먹고 돌디어 사람까지 죽게하는사실이잇서 세상에큰주목을끌고잇든이니 그일단중에한 사람은 이미체포되어 엄중한취조를 받는중이며 그의 수범은 상금까 지 체포되지안코잇스나 용산서에서는 전선각경찰서에 수배하고 범인체포에 대활동을 계속하더니이십팔일에 용산서고등계 형사가경북청주(淸州)에 출장하여 잠복중에 잇는주범을 체포하여압래하엿는데 파면 어주범외 일에서 어떠한죄를하엿나 자백하는 큰주목을 어끌고잇다

檢便拒絶로處罰

여름철을 당하야 전염병의예방으로 궁게하고잇슨 보통로서에서는 어린이들의 보건위생에 주의를 주는 한편 예방주사를 실시하는외에 검변을 실시하고 잇든바 그 가운데 검변을 거절하는 자가잇서 이를 처벌하기로 되엿다 한다

龍川郡守發起로 勤勞貯蓄稧創設

【龍川】평북용천군에서는 군수계찬섭(桂燦燮)씨의 노력으로 총후국민으로서 저축계(貯蓄稧)를 창설하고 일반군민에게 저축을 철저히 장려하기로하엿다

合宿中의運動選手 風紀가紊亂타고

町內住民들이警察에呼訴 可嘆!專門學生體面

학생풍기가 바야흐로문제되여잇는이때에운동선수의합숙소풍기가 여러가지로풍기상불미한것이 잇다고 시민의 입그틈에 오르나리는것이 잇다—시내 대화정(大和町)에 잇는대화옥여관(大和屋旅館)이층에는 요사히 시내모관립전문학교의 야구선수들이 합숙하고잇는데 밤이면야로한 유행가축음기를틀어노코 노픈 목소리로 합창하며 뛰놀뿐아니라 실로우려할태담과 음탕한풍경을 전개시키고 잇스며 그압거리를 지나다니는 여자들에게 망칙한패담으로 놀려대기가 일쑤이어서 부근일대의 주민들이 이것을 도모지 묵과할수업서 거리의 풍기를 위하야 어떠한제재를 주지못하겟느냐는 호소가 삼십일일 본정서 보안계에 들어왓다 이때까지의 경기도보도연맹으로서는 주로중등학생에게만풍기를엄제해오고대학 전문학생에게는 그다지심하게 감시하지아니하야서 전문학생은 보도연맹에서 일종치외법권을가진것처럼 되여잇는데 본정서에서는 금후이러한 현상이나타나지안토록 하기위하야 여관업자는 물론 당사자들에게도 엄중한 경고를보내기로 되엿고 또일방 보도연맹에도 이뜻을 전하여 전문학생들의 풍기에도 주의를하기로 되엿다

連絡船入港遲延 幹線各列車混線

三十日夜玄海灘의大濃霧로因해 三十一日中全部回復

【釜山電話】삼십일일오전 여섯시에 부산에드러올 관부련락선 금강환(金剛丸)은 삼십일밤에 현해탄에 나린 짓튼안개로말미아마 한번도로도리가서 안개가 개는것을 기다려서 다시하관을 떠낫스므로 부산에는 두시간이십분이나 늣게 도착하엿다 이때문에 부산을 떠나는 특별급행『아까쓰끼』는 정각보다 삼십분 보통급행「노조미」는 한시간 봉천행(奉天行)제오렬차는 한시간팔분 늣게되엿스며 이때문에 경성역에 도착하는시간도 각각한시간 내외로 연착이되엿다 삼십일일중에는 각선의 발착시간이 여전히회복될터이다

色鉛筆

만일의 경우를 위하야 평소부터 주의를 하여야한다는것은 가장 긴요한일 ▲여간한일이생겻다고덤비는것가티 사람의 체면이 깨기는일이 업는것이니 평소부터 어떤경우가 오던지 당해, 이겟다는 각오와 주의만잇다면 여간한일에 그리덤비지 은 업슬것인데 ▲간혹 거리에서보면 전차를 타는데도 채립은 점잔허보이는 사람들이 오르고 내리는 순간이라도 보기승하게 덤비는 광경이 적은 일이다나 이역시 평소의 주의나 훈련이업는 까닭 ▲비상시일수록 마음은 든든히 잡어야 할것이어던 한국며 판제의 경보가 앗는이때를 당해서는 더욱그럴것이다

今夜의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 라디오旅行 DK어린이서-클 指導 朴義燮 ▲六時二五分 講演 高義東 ▲七時三〇分 講演 安浩相 ▲八時 雅樂 ▲八時三〇分 라디오드라마 ▲九時 打鈴 鄭蘭玉 趙錦玉

第一放送 ▲午後六時(大)物語 ▲六時二五分(東)講演 ▲七時二〇分(大)歌謠 ▲七時四〇分(自天津) ▲八時(東)드라마 ▲八時四〇分(浪)義笛 ▲八時五分(東)浪花節

스포-츠

六月中에擧行될 陸上競技日程

六月中에 京城運動場에서 擧行될 陸上競技大會는 다음과가티 全部五種에 나누어잇다한다

▲六月五日(日)滿洲學聯對朝鮮學聯陸上對抗戰

▲六月十二日(日)第三回學生團對實業團陸上對抗戰

▲六月十八日(土)第二回京畿道女子中等學校學年別陸上競技大會

▲六月十九日(日)京城帝大對九州帝大陸上對抗戰

▲六月廿五日(土)午後一時와廿六日(日)午後零時(兩日間)第五回全朝鮮大學高專陸上競技選手權大會

法政6 明大2

法政對明大의 二回戰은 二十九日午後三時六分부터 法政先攻으로 열렷는바 結局六對二로 法政이 雪辱하엿다

	一二三四五六七八九	
明大	020000000	
法政	000200022	6…2

東大2 立敎0

東京六大學野球리-그…東大對立敎二回戰은 廿九日午後零時半부터 神宮球場에서 立敎先攻으로 開始된바 結局 二對零으로 東大軍이 雪辱하엿다

	一二三四五六七八九	
立敎	000000000	
東大	00000200A	2A…0

代理店募集 規定郵送함

南京虫全滅

(人畜無害라는글자가업스면 위험합니다 다른약에주의)

빈대 영영 전멸 南京虫永久絶滅!!

빈대전멸분팔진미 (갑싼것은작아쪽고꼿또나오다)

방이여럿이면……오원
두칸방엔……삼원
한칸방엔……이원
세협용……일원
송료 대금인환……선금 십오전 삼십오전

경성서대문리신기신성당으로주문하시오

京城西大門入口 조선제일큰약업회사

資本金百萬圓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二三四〇·二四九九·三五二七番) 振替口座京城四九五〇番 私書函(光化門四五號)

發明界의驚異

지독한 빈대는 살이썩기 때문에 수술을해야한다

急告!

빈대즉사전멸! 공 만세!!

빈대전멸분팔진미

빈대전멸 팔진미 (南京虫八珍味) 대성공

세계적신발명

전멸되는리유 (理由)

◉빈대가조와하는 냄새를 맛고나와서 가루를먹고 당장에 즉사하고 또 곳안죽은빈대가 가루를못처 드러가면 빈대집에잇는 빈대색기 빈대알까지아조씨도업시멸종하는 신기하고 이상한 세계적 신발명리상적전멸(理想的)에 대성공하얏습니다 쓰는법도 간단합니다 방가에가루를 뿌려두기만하면됩니다

類似品에주의하시오반드시 『빈대전멸분팔진미』를쓰시오 (人畜無害 인축무해라고써잇지안은 것은위험합니다 사실때반드시인축무해라고 써잇는것을사시오)

웬수의 빈대가 『팔진미』한갑으로 전멸되엿스니 이제는밤잠편히자고사람사는것갓다 이런고마운일은또업다 빈대잡다 불이잘난다조심하시오

빈대전멸

집안에빈대가우글우글 고로니인간의 큰수처오사 람의피를 바바먹어잠못자니저 긋지긋하다「삼간초옥불에다—타 는것은 앗갑지안어도빈대 타죽는 것이서원하다」라고한다 이 얼마 나애처로운 사실이냐 이제까지 별짓을다—하고 별약이만엇스나 안되엿다 그런데이번에세계 적으로 신발명되엿다 일시적이 아니고아 조멸종한다 사람의지 식과,과학의힘은 위대 하다 문명이 전보하면당 연한일이나 이갓치신기한발명은 처음이다 곳쓰시오 문명국민의 행복을누리시오

全人類明朗譜

전인류의반가운소식

婦人無視絶對不可

全朝鮮 一千萬 婦人이여 覺醒하자

一千萬男子에게 嚴重抗議하자

男性의이罪惡을如何히處置할까

一、女子의赤白帶下 惡臭 冷症 腰痛 月經不調 姙娠不能 早老不感症 淋毒性、梅毒性及生産兒의胎毒 어지러운症等 모든子宮病惡疾이全部 男子의 不品行으로因하야 家庭婦人에게준것이아니고 무엇임니까

二、婦人들 十中八九까지는 冷症이니 帶下症이니 반듯어 무슨子宮病이잇는것은 가리울내야 가리울수업는 事實임니다

그러나 男便은 婦人에 對하야 그 治療를 等閑히하니

新發賣 最高貴藥

婦人百補丸

調經胞胎·補血强壯

代々孫孫·鉄血子女

●婦人無視는絶對不可함니다

朝鮮一千萬婦人病一掃를爲하야이를嚴重抗議하자는바입니다 婦人에病이잇스면夫婦不和하고家庭不平하고代代孫孫이不健康한子女가出生되고乃至家庭經濟살엄사리까지不經濟不規則하는等百가지弊害와損失이잇습니다

全朝鮮家家戶戶婦人百補丸一劑式쓰자

그리고 男子도 今日부터 탈線말고 謹신하자

그리하야 조흔血統을만들자平和단樂한家庭을만들자

어머니와 임신부인께

一·이藥을임신한 婦人이쓰면 母體와 胎兒가 튼튼하게되여 健康한子女를 낫케되며

二·어린애잇는 産母가쓰면 젓이잘나고애가에 영양발육이 잘되며

三·産後에아약을쓰면 産後衰弱症세가 速허회복되여 元氣와피를 보하게됨니다

老婦人 生男

斷産한지 十年지난 四十七歲의 老婦人이쓰고 胞胎하야 玉童子를 解産한等의 實例가 만흔 藥材올시다

主治効能

經度不調、月經困難、月經過多、子宮出血、子宮虛冷、手足厥冷、食慾不振、氣血俱虛、顔面蒼白、虛弱消瘦、精神憂鬱、眩暈、히스테리、疲勞倦怠、全身虛弱、卵巢홀몬不足에依한 神經衰弱及不眠症、乳汁分泌不足及缺乏、赤白帶下症에依한 惡臭、女子淋疾、消渴、膣カタル、便秘

多病한婦人·無子한婦人의 最高貴漢方靈藥

婦人百補丸發賣開始

生男生女天下待望의 世界的 婦人名藥

○부인이 경도가 고르지못하거나 냉병과 대하증이잇거나 귀여운자녀를 낫치못하거나 부부의애정조차 모르게되는것은 모다난소홀몬이부족한까닭입니다

○「부인백보환」은 다수한 부인科의학박사가실험증명한 난소홀몬제를 벼룻하야 자궁을보하고 혈분을 보하고월경을고르게하는성분이 완전히가입배합되여잇슴으로

○이약을쓰면 경도가 고르고 자궁이더워지고 혈색과 안색이 조와지며 모든부인병과 허약증세가 업서지고 튼튼한몸으로 포태생남케됨니다 特히 이부인백보환에가입된난소홀몬은 부인에게는 업서서안될 特別한홀몬임으로

思春期의處女가 복용하면 유방이불너지고 자궁발육이속진되며

更年期의老婦人이 쓰면 中止되엿든월경이 다시 계속되여 쇠하고 고갈되엿든 난소、나팔관등 자궁의모든기관이 윤활한작용을 다시 시작하야 二三十세시절을 생각케되는신묘한약입니다

모든부인병으로인하야 남모르게 신음하는부인이나 귀여운자녀가 업서서 고적하게 지내는부인은 쓰시요

淋疾잇는男便을가진부인은 즉시 이부인백보환을 쓰시요 淋疾等으로 因하야 生하는 子宮內막의 各種病이 特別히잘낫습니다

婦人百補丸을 쓰면 이러케됩니다

●子宮과 內部가 불잣치 더워저서 爲先 冷症이全部업서지고 無子한 婦人도胞胎하게됩니다
●赤帶下 白帶下 黃帶下가 업서집니다
●淋疾及雜菌이 업서지고 子宮惡臭가업서집니다
●飮食消化도 잘되고 便秘症이업서집니다
●姙娠中에 이약을쓰면 健康한子女를 出生합
●月經을 二十日만에도하고 五十日만에도하야 月經日이 一定치안은분
●月經色이 鮮明치못한분
●恒常몸이 압흐고 感氣가자즈신분
●두통 상기 현기나는분
●월경이 아주업스신분
●월경이외에 피가나오난婦人
●대하증이 곳치지안는분
●아래와 수족이 냉한분
●허리와 아래배가압흔분
●가슴이 저리고 숨찬분
●국부가 가렵고 오줌이자즈분
●산전산후 쇠약한분
●젓이 잘안나는분
●부부화합의 자미를 모르는분
●건강하야 보이고도 어이봇난는분
●기혈이 부족하고 안색이 창백하고 잠잘못자는분
●소화가 잘안되고 체적이 오르내리난분

藥價 一劑 七圓

無料進呈 三人共同注文을 周旋하시는분에게는 一劑를 無料進呈합니다

▲婦人百補丸한劑를쓰면男便에게 順從하고親切하고 沈着하게됩니다 그理由는 卵巢子宮異狀이一切全部完治되고 心身이完全한女性體質이되난까닭입니다

吾妻를사랑하고 家庭과 子女를사랑하는 男子는爲先婦人에게 이藥一劑를사드리시요

京城堅志町五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振替五番 電話三三〇番·六三二番

어머니의잘못으로되는 어린애의잠투성

업거나젖물려재우는건낭분버릇 신경질인애가더하다

어린애기들은 조그마한일에도 습관이되기 쉽습니다 그러키때문에 조금만 어머니되시는이가 주의를하고힘을드리면 좋은습관을 가지게할수잇고 조금만부주의를하면 애기네들이 나쁜습관을 갖기쉽습니다.

아이들이 잘때에 몹씨보채거나 여러가지로 성화를 시키는것은 대개 어머니의 부주의로 조치못한 습관을 만들어주엇기때문입니다 이아래 몃가지 조목을 들테니 댁의 애기는 이조목들 가운데 어느것을 잘못해주는지 자세읽어보시고 곳치도록하십시요.

一、잠ㅅ자리와 자리옷은 적지안코 늘 보송보송 말려잇도록할것

二、잠자는방은 조용하고 너무덥게말것이며 전등을비치는무엇으로 가려하미하게할것

三、벼룩, 빈대, 모기가튼것들을 잘잡어줄일

四、자기전에 잠간 목욕을 시키면 조코

五、자기전에 음식이던 젓이던 파식을한다든지 또너무배가 고파도 잘자지안습니다 그리고 뒤가 매려워도 자지안습니다.

六、무릅에 뉘여재운다든지 안어서재우는 습관을 길르지말것

七、젓꼭지를 물려서 재이는습관을 기르지말것

八、밤에 잘자지안커든 나제자는 시간을 조곰 줄여서 잘조화를 시킬것

이러한 여러가지 주의가필요한데 이리케해서 보통때는잘자던 애기가 갑자기자지안코 보채거든 무슨 탈이라도 난줄알고 잘살펴보실것입니다. 또 자기전에 어떠이 애기를 가운데노코 몹시 웃키거나 흥분을시키면 그날밤엔 잘자지안는데 이러케 사흘동안만 계속해도 벌써 그것이 습관이되여버립니다.

또 업어서 재운애기는깰때까지 업고잇지말고 가만히 자리에 내려뉘이도록할것이며 언제든지 무릅에안켜재우거나 업어재우는 습관을 기르지말것입니다.

신경질인 아이일수록 자기가힘들고 또 자다가 한번깨면 좀체로 다시잠들기 힘든데 이런아이는 조용히 자장가를부른다든지 이불위를 또닥또닥 두들겨주어도 기분이 유해지면서 잠이들게되는것입니다.

너무 몹시 흥분되거나 엽고 까부는것은 애기네들에게 그리 고마운일이 아닐뿐만아니라 이런것이 습관이되면 혼자서는 통이 자지안케되는것입니다.

누구나시려하는 군색한 살림

무슨수로모면할수잇슬까 비결은오즉저금에잇다

요즘은 세월이 전과가치안어서 모든물건을 액겨쓰고 돈도저축해 두어야겟다는것은 귀에못이 배이도록 듯는소리입니다 더구나 이저축은 전국가적으로 계획되고 실행해야할것이라는것도 누구나 다아는바입니다. 저금은 한집안의 안정을 쥐고잇는 열쇠입니다. 저금은 누구나 하고십허합니다. 그러나 저금하기처럼 하기어려운 노릇이 어듸 또잇습니까. 더구나 지금처럼 생활비 비싼시기에 엇서서는 이저금이 더욱 큰 뜻을갓고 중요성을 띄고잇는것입니다.

그래서 저금이하고십흐나 하지못하는분들을 위해서 어떠케하면 저금을 할수잇슬까하는방법을 말슴해드리겟습니다.

×

영국에 론도리ー란는 학자가 잇섯는데 이학자는 사람의 일생을 다섯으로 난호와 다음과 가티 말햇습니다.

제일기, 어릴때(십오세까지)ー 어때는 부모가 가난하면 거기따라 가난에 쪼들리고

제이기청년시대(십오ー이십오세)ー이때는 부모의 수입을돕고 독립생활을하게끔되고

제삼기, 장년시대 (이십오ー사십)이때는 결혼하고 자식나코하기에 다시 가난해지고

제사기 중년시대 (사십ー오십)자식들의 도움으로 조금때이고

제오기 노년시대 (륙십세이상)자식들이 결혼을해가지고독립하게되면 또다시 자기는곤궁해진다.

이러케 일반 돈업는 사람의 생활과 길을 말햇는데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서 시작되여서결국 가난하게 끄를막는다는것이 이 론도리ー씨의 가난선(貧乏線)이란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늘가난해야되겟습니까. 여기에서 구원받고 얼마의 돈들이떠모아 때노하게하는것은 역시 저금하는 한가지밧게 업습니다. 젊어서 자기손으로 돈버리를할때 한푼이라도 모와두어야합니다.

그런데 저금을할생시프나 한푼도하지못하고 늘 뒤가 쫄리는 사람들은 월급쟁이니다. 월급받는 사람은 만히 바드나적게바드나 매한가지로 남는것이 업다는것이 일반셀러리맨의 비명입니다

가령 여기에 우선월급을 륙십원까지밧는 봉급자의 가정을 어떠한 가정에서 딘지말이도 모자라고 어떨에던 또 부족이고…그래서 남들과 전혀우중한이어 잣고 존아하는 중파필에가야하고 어여쁘면 또 셋째가어머니배ㅅ속에서 나올때이고…。

이러노라면 살림은 늘 한모양으로 옹색하고 메이지 못하논데 이러한가온데에서도 저금을 하는데는 무엇보다도 처음 시작할때 만히나 바로 먹기에 달렷습니다

부인개성평양 단오노리 견학단

떠날날(六月)은래일

경성역집합은午前七時二十分 갑분하게차리고나서십시요

여러분께서 손꼽아 기다리시든 개성, 평양단오노리도 인제 하룻밤만 자고나면 되겟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따님이나 아드님이 학교의 원족날을 기다리드시……

그런데 떠나기즈음해서 여러분께 몃마디 드리고시픈 말슴이잇습니다.

이번 이모힘은 피차 알지못하는분들을 모아서 한단체를만들엇고 또 가시는분들이 수효도 만흐니만큼 본사측의 인솔자나 여러분 다각각 양해하야 만흔 주의와 요량이잇서야 이번 이노리가 유쾌하고 의의잇게진행될것입니다.

제일첫재로 어려운노릇은 들어안젓든 가정부인들에게 단체행동을 시키기입니다.

그러므로 래일제시간에 정거장에 나가거든 여러분께서는잠간 인솔자의말이 한번떠러지거든 척척 그대로 규측잇게해주시고 무엇이나 여러사람이 하는대로 다른사람에게 거슬리지안케합시다.

그리고 인솔자의 승락도업시 혼자 떠러지거나 빠저서 무엇을사거나 우물주물하다가는 길을일키겟습니다 아예 맘대로하지마시고 정신을 똑바로채려서 단체행동을 한번 그럴듯하게해봅시다.

시간은 벌서 말슴한바와가티 유월초하로ㅅ날 오전칠시이십분까지 경성역으로 죄다 모히서야합니다. 이럴때 제일 딱한분은 늦게오시는분ー。

그리고 애기네들은 절대로다리고 오지마십시요. 어쨋든 이날은 꼭 제시간을 대어서 경성역으로 모여주서야겟는데 시간을 다시말슴드립니다. 오전칠시이십분까지입니다. 부디 늦지말어주십시요. 비가 몹시오면못떠나지만 어지간하면 그대로떠납니다.

양장하고모자안쓰랴면?

어색하지안흔 불란서식 네트모자

요즘 일본내지에선 여자들이 양장을하고 모자를 쓰는데 그모자를 남자들처럼 인사를할때나 예의를 가추게될때 버서야 하느냐 그냥 쓰고잇서야하느냐가 상당히 문제되여잇습니다.

그것은 양장엔 본래 모자를 어떠한곳에가서라도 벗지안는것이 정당한일로 되여잇습니다. 그러키때문에 서양여자들은 한번쓰고 나오면 모자를 벗게나와서 버서놋는일이 업습니다.

양장에잇서서 모자라고하는것은 남자들 양복에 넥타이나마 가지로 그옷에 부른 제법제 때문에 남자들 모자와는 아주 성질이 달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내지에서 문제되엿슬때 쓰고잇는것이 당연한일이라고 주창하는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양장에 모자를벗는다는것은 머리에 짓은 번이나 그물을 벗겨서 머리를 푸는거나 다름업는것이라고합니다. 그도그럴거시 여자들의 모자란 손바닥만한것을 핀으로아주 머리에 꽉찔러두는것이니그것을 일일이 벗는다는것은 좀 문제인것도 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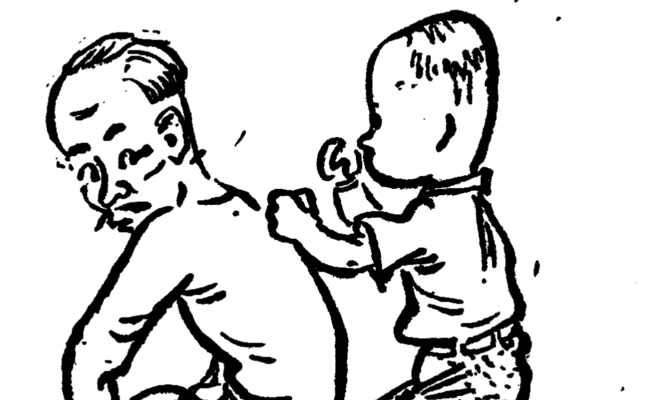
하여튼 조선여자들도 양장한 분이만흐니 이러케 모자가 문제되는것도 알어두시고 또는그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새로운 모자아닌 모자가 생겻다는것도 말슴하겟습니다.

작년여름 파리에서도 부인들에 모자에대해서 의논들이 일어낫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본내지에서처럼 의나인사때문이아니고 위생상 여름에 모자를 쓰는것은 조치못하다고해서 일제히 무모(無帽)주의를 실행하엿습니다.

그러던니 그후 한사나흘 지내서 벌써 파리모자점에서들은 그물모자ー이것은 쓰나마나한 것인데 이런것이 나왓답니다

◇…윤 무

지차리우



현머리카락

수남이가 아버지 등을 처다보고

『아유ー아버지 머리에 흰머리카락이 퍽만히 낫군요』

하고 떼드니까 아버지 대답이

『내가말을 잘안드러속을 썩혀니까 그러치』

하셋습니다 그러니까 수남이말이

『그럼 아버지는하라버지 속을 퍽썩혀 드렷군요』

(몽순사람)

아모나할수잇는 안전한맛사ー지

◆얼골주름살이펴저요◆

분이나더러운때를죄다 지워버린후 영양크림이나 풀을 얼골에 골고로 발르고 그다음 손끝으로 가볍게 두들깁니다.

두들길때 손목의 힘을주지말고 부드럽게해가지고 아래로부터 우호로 안으로부터 밧가트로ー이러한 정도로 살작 살작 두들기면 조습니다.

특히 가죽이 느러진데 이를테면 눈아래 드러간데라든지아래턱이 느러진데라든지 뺨이드러간데는 더욱 정성을 드려서 두들기면조습니다.

이러케하기를 한 오륙분간하면됩니다. 이것을 계속하면 적당한 자극때문에 쓸데업는지방을 업새하고 쪼구러진 살을 다시 소생식히는데 큰도움이됩니다.

맛사ー지를 다한다음엔 크림이면 잘닥고 풀이면 따스한물노 씻친다음 화장수를 발리는것입니다.

長篇小說 愚氓 【35】

朴泰遠 作 洪祐伯 畵

지금까지의 梗槪

백백교 교주 전영호는극흉극악한 인물이엿스나, 아들 김학수에 대하여서만은, 자애기픈 아버지엿다. 학수는 올에 나이갓스물ー남자로써 뛰여나게 잘생긴그를 온전장에서 한번보자되기 유명옥은 혼자 가슴속에 정화를 태운다. 그들은 그곳에서 또 안악사람최건영과 알엇다. 최의 조부되는 최수부는 열렬한 백백교교도로 이제까지 교를위하여 바친돈이 수만원에 달하고 그로 팔미아마 집안형세는 나날이 기울어저 갓스나, 최건영은 그사실을 전연 모르고잇다

경성으로 도라온뒤에도유명옥은 학수를 자주 차젓다. 그러나 그가 학수에게 사랑을 고백할 기회는 좀처럼 업섯다 그래도 그는 자기가 이제 아프로 반생을 두고 목숨을 걸어 사랑할사람은 이 하나바게 업다고 혼자 마음으로 작정이다.

음력 정월초하롯날ー학수는 백백교 대사 구경득이에게 이끌리여 행경으로 아버지 전영호를 만나러 갓다. 학수는 아버지가 올지안흔 일을하고 잇는것이 마음에 슬펏스나 역시 자기에게 대하여서만은 조코 착한 아버지다. 그것이 학수에게는 좀더 마음에괴로웟다.

그리자 장안 거리에 한명의 정신이상자가 나타낫다. 사람들은 그를 『거리의 철학자』라고 불럿다. 그는 선천사람 김유옥이다. 지금으로부터 십오년전에 백백교 근동위 조원준은 그의 젊은 안해를 빼아섯다. 사랑하는 안해에게 배반을당하자 지극한 슬픔은 마침내 김유옥을 미치광이로만 든것이다.

白主事의집 (1)

몰개(勿開)를 지날 임시하여 부실 부실 나리기 시작한비가 사리원역에 다엇슬때는 줄처럼 끈힐상십지 안케 좌악좌악 쏘다젓다.

학수는 조그만 슈ー트케이스를 한손에 들고 플래트홈우에 나려서며

(이건 때일을 잘못하지 안헛나……)

하고 철둑우에 퍼붓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잠간 눈살을 찌프렷다.

몹시 가물엇던데다 오늘 찻속이 또 유난히 더워 비한줄기 나리는것이 그다지 헤롭을것 업서도 처음 차저가는 최건영의 집을 비를 맛고 물어가기가 학수는 마음에실혀젓다.

되구나 장연(長淵)가는 차가 나가려면 반시간이나 너머 잇서야 하고, 또 그차를 타기위하여서는 비를 그대로 맛고서 조철선(朝鐵線)까지 가야만 되는 일이라 그래학수가 잠깐 그곳에 망설거리며 서잇스려니까 한 사나이가 여며 와서며

『우중에 어떠케 이리케 나려오섯습니까?』

하고 바로 정중하게 인사를한다 도라다 보니 금테 안경을 쓴 사십남짓한 사나이다. 어데서 본일이 잇는법도 하지만, 미처 생각은 나지 안코, 그래 학수가 의아스러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려니까,

『사리원 사는 백준만입니다 구경득이에게서 이차로 나려오신다 말슴을 듯고……』

잠깐 말을 끈혓다가,

곳 제게로 가서서 좀 쉬시지요.」

하고 학수가 들고 섯든 가방에다 손을 댄다.

(그럼 이사나이도 아버지의수하사람이엇던가?……)

어제 우연히 들렷던 구경득이를 보고 얼마동안보신천오천에라도 다녀올까 보다고 말은하엿다. 그러나 그말을 듯고서 구경득이가 꼭 이 백준만이라 하는 사람에게 기별을 할줄은 파시 몰랏다. 어찌면 아버지가 시킨 일인지도 모르나하는 학수는 오직심사가 우울할따름이다.

『허지만 이번차로 곳 떠날생각인데요.』

학수는 나즈나마 분명한 어조로 말을 하엿스나

『그래도 우중에 어찌 가신겟습니까?』

백가는 다시 학수가 무어라고 말할수 잇기전에 벌서 그의 가방을 빼앗어 들고

『제집이 바로 역 아펀니다가세서 잠깐 비라도 거니시죠』

다시 은근히 례를 하고 그대로 엽장을 선다 그래학수는 그의 뒤를따러 가는수밧게 업섯다

그러나 거북하게 생각하기는 학수만이 아니라 백준만 역시 일반이다 옥화를 데리고 해주에서 도라오던 차속에서 학수를 맛나자 마음이 제법 께름칙하엿던 그때 이제 바루 옥화가 잇는 집으로 학수를 안내하지 안흐면 안되는것이어 그에게는 좀 재미가 적엇다 그뿐이 아니라 그때가러 사리원으로 도라온뒤에도 그와 게집 사이에는 떼떼로 학수이야기가 나왓섯다. 계집의 마음이란 미묘한 것이여서 옥화는 그에게로 살림을 들어온뒤에도 바갓출입이 잣고 길에서 젊은 사내라도 맛난다면 남자쪽에서 도리혀 면구하게스리 빠안히 처어다 보기가 일수다.

그러나 그러한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뜻이 잇든것은 무어 별도 언젠가 도홍이라나하는 기생에게서 온 편지에 『안상』이 대판서 도라왓다고 옥화가 살림 들어간 말을 듯고 여간 비편하는게 아니라고 그리한 불온한 사연이 한구절 적혀 잇섯기때문에

『대체 이 안상이란 어떤자란 말이야? 어떤자』

남자편에서 강짜가 시작되여 가지고 평소의 가진 단정하지 못한 언동을 알알샅샅이 들추어 내던 끄테 마치내는

『그때도 말이야 그때도…해주서 오는 찻속에서 바로여페 안젓던 학생을 보고서 그게 대체 뭐란말이야 뭐란말……얼어웃통 빼저가지고 입을따악버리고, 온 참 저레안저잇던내얼골에 뚤뚤한 노릇이아니고? 뚤뚤할 노릇어……』

설마 바루 그 당자를 데리고가기가 옥화아메 나라나게될줄이야 파시뜻밧기엿다.

그는 미리 대령하여 노핫던 자동차안으로 학수를 인도하며

(언제 그 벌어먹을 화상이학수를보면 싹ー죽을 못할레지 싹ー죽을……)

하고 생각을하니 몹시 언짠엇다

부인의건강법!

결혼후에 몸이약해지고 애기를못낫는 원인은무엇인가?

처녀때에는 몸이건강하고월경도순조롭게매월한번식 일정한날자에는잇고 월경시에도 별로고통이업시지내고 여름이나겨울이나언제든지 튼튼한 몸으로지내던몸이라도 한번결혼하고가정에드러안즈면 전과달러서 시부모와 남편시중을하면서 살림에골몰하게되므로 신체가점점허약해지고 얼굴에화색이업서지며 월경때가되면 허리와아래배가몹시아푸고 월경이처녀때와가치 순조롭게나오지안코 차차로불순하야지고、월경전후에 대하증이흐르는것은 두말할것업시 부인병이잠복되여서 그런것이니 먼저 원인을잘생각해보아서 하로바삐 적당한 치료를하지안흐면 남과가튼귀여운 애기도나을수업고병은점점더하야 고통이심해지므로 부부간정리도엷어지고가정불화까지 자연히생기게되는것입니다

여러분가운대 이와가튼증세가 잇나업나자세히 보시기바랍니다

첫재로 결혼한지三년、五년、이지나도록 남과가튼 아해를못낫는것은틀림업시 부인병이잠복되여 월경이 불순한까닭입니다 월경이불순한것은 란소의기능부족으로배란작용이 잘못되는까닭이니 남자가무병한때라도 애기를배지못하는것입니다 애기를못낫는까닭으로 시집사리를재미스럽게못하고 적적하게지내는분도 만흘것입니다 이와가튼 애기를못낫는분은 병세를 자세히적어서 보내시면 적당한약을보내드립니다

둘재로 대하증이나 누런코물이나 게란흰자가티되여서 만히흐르거나 월경전후에피고름가튼 대하증이흐르는때는 더욱주의하지안흐면안됩니다 다음에대하증에서 냄새가심하니서 남이메갈수도업고 시부모에게잇는 젊은부인으로서는 더옥고통이심할것입니다 이와가튼 대하증에는 동경에잇는『명지모』와『오기나구』두가지약을 쓰는것이제일조흡니다

셋재로 아래배가끔시아프고 뗑기고 허리가끈허지는듯이아프고 다리가무겁고 가슴이답답한것은부인병이속으로기피되여 잠복되여혈기가잘통하지못하는까닭입니다 그러므로이러한증세가 조금이라도잇거든 내버려두지말고 몸조섭을잘하며병세에맛도록가감한『명지모』를복용하는것이제일적당한치료방법이라고밋습니다

넷재로 남편의한번 실수로 발생한림질은 부인에게까지전염되여서 자궁내막염이되고 내막염이점점더심해지면방광염、실질염 자궁외막염이되는수도 잇습니다 이와가티 남편에게서전염된림질로하야 발생한자궁병에는『이호가리명지모』와『오기나구』두가지약을 쓰시기바라며 병이완전히낫도록은 동침하지안는것이 조흡니다

남편의림질에는『扶淋丸』이제일 적당할뜻하오니 소용되시는분은선금으로 一圓을보내시면 十五日동안복용할 약을보내드립니다 『명지모』는 복용한지三日만지나면 얼굴에화색이돌고 기분이조화지므로 우리조선부인의 체질에는 제일적당한약이라고밋습니다 부인병으로고통이 심하지안흐도병은 벌서 만흔고질이되여잇는수가만습니다

흐니 어약을주문하야 복용하고자하는분은 우선일주일동안이면 효과를알수잇지만 한달가량은복용해보시는것이 조흘듯합니다 만일한달분을주문하엿다가 약효가조와서 일주일동안에병이근치되엿다하드래도 남은약을다른사람에게주거나 필요업다고버리거나하지말고 한달동안을꾸준히복용하시면 재발될염려도업고 틀림업시조흔효과를어더서근치하고 귀여운애기를나흐실수잇으니 여러분께서 명지모를주문하야복용하고자하는분은 여러분의병세를속임업시 자세히적어서보내시고、약은몇칠분만적당하게보내라고하시면 본포에서 여러분의병세를자세히보고 병세에제일적당한약을보내드립니다

이신문을자세히읽어보시고 오려서 東京市京橋區八丁堀 笹岡藥房으로보내시는분에게 조선말로 알기쉽게자세히쓴부인병자의 치료법과 명지모의 설명서를 누구에게든지한권식 거저 드리오니 약을 주문하지안는분이라도 하로바삐 청구하시기 바라나이다

이약은 광고와조금도 틀림업시 약효가굉장하고 신용이잇스니 약을주문하야쓰고자하는분은 병세를 속임업시자세히적어서 본포로보내시면 병세에꼭맛는약을 대금인환으로 보내드리오며 또 한약을선금으로 주문하시는분에게는 송료를전부본포에서 부담해드리니 여러분께서 편리한방법으로 약을주문하야쓰시기바랍니다

七大博士推奬

부인병에 먹기조코 効果잇는

命之母

主効 月經不順 手足冷症 下腹痛 頭痛眩暈 産前産後 帶下症等

各地藥店에서 販賣합니다

藥價

命之母		오기나구	
六日分	一圓	八日分	一圓
十三日分	二圓	十七日分	二圓
二十日分	三圓	二十七日分	三圓
三十五日分	五圓	五十日分	五圓

東京市京橋區八丁堀 本舖 合資會社 笹岡省三藥房 振替東京五〇五〇番 電話京橋二八八七番

ホルモンが肌に直接作用する

호르몬이 살결에 직접 작용하는

一眞正한크림……얼굴을아름답게하는

ホルモン配合 クラブ美身クリーム 구라부미신크림

アレ止めに 肌の若返りに 白粉下に!

大評判의 젊어지는크림!

살결의소질과化粧바탕에는 クラブ美身크림이 가장 조흡니다 호르몬으로配合한 純良脂肪性의 榮養크림인故로 全部살결에녹아드러서 皮膚의거칠음과 살거칠음을 解消하고 윤택한健康肌를만듬니다 어서써서 表面에만作用하는 普通크림과 比較해주십시요

六月創作 一人一評 (三)

一人稱小說과 超然意識

李泰俊

『竹馬之友』
朱요섭作
—『女性』—

주요섭氏의 『竹馬之友』가 『女性』 六月號에 前半만 낫다. 後半까지 完讀하고야 讀後感이라도 쓰겟다니까 印刷中인 그 後半分을 먼저빌려주어, 그 後 읽기는 다읽고 쓰는것임을 미리말해둔다.

×

『나』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C、會話의相對者K、이야기로만 紹介되는 P、이세사람은 竹馬故友다. 일찌기 鄕關을가치떠나 南支各處에 轉轉苦樂을가티하며 가튼꿈 가튼情熱에 靑年期를 보내엿다. 한번도 터저 行路를달리 가진지 여러햇만에 北京에서 昨年에 P를 만낫고 亦是이제北京에서 K를 만낫다. 昨年에본 P는別로달러지지안햇다. 꿈과 눈물과 潔癖을 그냥 지니고잇섯다. 이제만난 K는 아주달러젓다. 그에겐 自然이고 人生이고 다 思索의對象은 아니요 오직享樂과利欲에만 눈이붉어잇다. 人生의 無常함이

|生| 死에만 잇지안흔것을歎哦惱하는 半獨自體의 心境小說이다.

읽으며는끼바이잇는 個所와 읽고 난뒤에 가져지는 感想中에서不滿스러운것만을 簡單히 적어보기로한다 于先 첫머리의 自然描寫가 그냥 지내처지지안햇다 머리에서 이내斷面感이 나와지지안코 長篇『復活』의 첫머리를읽는것가튼 곳을 天涯에 바은듯한 平行線이 느껴지엇다. 短篇의 머리로는 너무 느리저서 第二段七行까지 업새도되고 아주축내려와 다음페지 上段한줄을 떼인데까지를 떼여버려도 아무런지안케 되엿다 短篇에서 이만한分量이나 理由가稀薄하게 存在하는것은 組織上 致命傷의 程度라 느껴진다 自然描寫가規則的인 距離에서 이야기를끌고 나오군한다 이것은 作者의

|意| 識的인 方法이엿슬줄로 모르지안흐나 워낙 行動이업는 對話와 懷古뿐인것이 同一風景의 描寫때문에 토막토막 끈허지는것은하나둘만 아니 작꾸헤이며 踏步하는것갓다 頂點까지 헤여나가는것가튼 嚴肅을同한進展이 느껴지지 안햇다 그리고 K가 主人公을爲해 너무利用을 當햇나보다한다 K의 言行을 더強調해도 讀者가 肯定할수잇슬터인데 이만程度의言行에서 讀作感이 나는것은 K를 表現한 手段의 大部分인會話가 不實한때문이라생각한다. 『참말이지 내가 자네 주소를 찻느라구 참 애썻네 애초에 자네가 이북경성안에 살구잇다는걸 아는사람이 하나두 업데그려 사람이 그러케 교제성이 업서서야 무엇에 쓰겟나?』

|呼| 語感에 아무런 악센트도 呼吸도 느껴지지 안는다 會話이기보다 文章인편이다. 人物에 잇서 P로말미아마서 P는 得보다 失이 커보힌다. P를 끄러내인것은 主人公의 여간 큰 自慢가아니다. P를 더 對照시키는것은 得이엿스나 『그때두 친구가 청햇는데 안가면 실례아닌가?』하고 내가 애원을 하니까 『허 O군두 인전 시속변인이 더되구 말아버그려, 실례가어쩌니 어쩌니 할필요 다잇구 그까지 남이야 욕을 하거나 건 상관잇나? 누가 저녁어 더 먹으러 북경까지 오는줄아나?』 이러한 P군이엿다 하는것으로는 C 주主人公은 更 打擊이다. P를 만낫을때의 自己는 지금의 K의位置에 서진 것으로 보여지기때문이다. 一年뒤 지금

|白| C가 K에게對하는態度를 P를 模倣하는데不過한것으로 보여지니까 여러것의C의 性格에게 全的으로 信任이 가지지 안는다. 다 읽고나서 한가지 떠오르는 問題는 『超然』이다. 小說에서뿐 아니라 隨筆類에서도 文壇人들은 흔히 潔癖精神을 집긴다. 作者自身도 그中의 한사람일지 모르거니와 이潔癖은자칫하면 『超然』이 되어버리고『超然』이되면 讀者에게 아니꼬아 보어기가 一手이다. 그것을 더욱 一人稱『나』로라하고나서서 쓰는것은 좀더 考慮할 餘地가 잇다고 생각된다.

×

지금 北支에는 K들이 얼마든지 잇슬것이다. 그들의 血眼 그들의鐵面、그들의人生觀 좀더 보고싶다. 뉴ー쓰映畫 兵戰 좀더 K들이 具體的으로 나서는 小說을 더한번 주氏에게 請하는것은 우리의 過度한 食慾일가? 妄評謝謝

(小品)

고양이 (五)

朴魯甲

그뒤로 얼마 동안은 아무 일이 업섯다. 일허버린 병아리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저윽이 가실만 하엿다.

병아리 들도 놀래인 가슴이 저윽이 진정 되듯 팔업시 놀엇다. 요동안 고양이 놈도 이 마당에 그림자를 좀 비치들 안햇다.

우리 남쪽 유리창에도 그사건이 잇슨뒤로는 놈이 발거름을 안 한듯 놈이 하루는 제법 여섯 하게 와 안자서 역시 그 눈동자로 우리 방을 드려다 보고 잇섯다. 저뿐 아니라 제 여페는 제몸뚱이 반 박게 안되는 새끼 하나를 다리고 잇는 것이엇다.

나는 고놈의 눈동자가 이번에는 기맥히게 미운 생각이 들엇다.

저만 못한 족제비란 놈도 제가 옹거하는 집 병아리나 생놈은 해치는 법이 드물다는데 저놈은 뎅치가 저만이나 하것다 꿀에 호랑이 모습을 한놈이 그러케 멀정한 놈이잇는가 시퍼 대번에 손바닥으로 유리창을 처 조처 버렷다 그뒤로는 그놈의 얼굴이 이 유리창에 보이지 안햇다.

그러고 얼마 안잇다 생각입이데 남은 병아리 두마리에서 한마리를 또 도적하여 가지 안햇는가!

때마침 나는 집에 업섯고 나제 어데 갓다가 저녁에 들어와 들은 이야긴데 대나제 마당에서 노는 놈을 사람이 잠간 비인새 고새에 물어 갓다는 것이엇다.

안해는 나의 밥상 머리에 안자서 오늘 이집안에 생긴 일로는 제일 큰 소식으로 이 이야기를 하여 주엇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듯고는 나의 남쪽유리창을 몃번 거퍼 치어다 보앗다.

그 이튼날 병아리 한마리가 홀로 서서 모이를 쫏는것을 보니 무한 쓸쓸하여 보엿다.

저놈도 결국은 저의 먼동무들과 가튼 운명에 빠지고 말것 가텃다.

그러나 이번 만은 고놈 고양이 놈한테 빼앗겨서는 안되도록 단단이 지키게되엇다. 나제라도 사람이 박게 업고 방에만 들어가게 되여도 병아리는꼭 몸이 우에 감춰 한도록주의를 하고, 밤에야 그놈들 하게 지키는 뜻이 어뎁도 업섯다.

다만 병아리가 마당에서 자유롭게 놀수잇는 때는사람이 마당에 잇는 때엿다 어미케만 주의를 한다면야 고양이 아니라 고양이 보다 몹쓸 가는 놈이기로 설마 어떠랴 시펏든것이엇다.

어리기를 며칠 하는 동안고양이 놈은 또한그림자도 구경 할수가 업섯다 그의 새끼가 어미를 부르는 소리는 혹 들엇든듯하나 나의 남쪽 창에도 몰룸 얼씬 하지안햇다.

그리는 동안 나는 고양이도 이저버리고 병아리일도 이저버리엇든 것이엇다

하루는 역시 늣게 도라오니 나는 옷도 미처 바꾸어 입기도 전에 안해는 또한가지 오늘 이집안에서 일어난 일로 가장큰 소식을 전하여 주엇다.

고놈이 한마리 남은 것을 마즈막 잡어 갓다는것이엇다.

듯고 보니 이번이야말로 그놈은 절도질이 아니요강도질인 모양이엇다. 길가는 여인네 금비녀 빼가듯 한 것인가십다.

조심 조심 한든 나머지에 병아리를 품다시피 가까히 두고 무엇을할때、백주에 사람아메 달려들어그놈 고양이놈이 병아리를물고 내빼엇다는 것이엇다.

고양이놈은 이집 병아리를 마주막 먹고말엇다.

나는 다시 이남쪽 유리창을 바라볼때에 여름 아니라 더한 때라도 안해가 이미 몽한것을 터놀 생각어 들지안햇다. (完)

鄕土文化를차저서

第四班 濟州島行 (二)

濟州島와 女子

方鍾鉉

이섬에 가봄이와 이섬을 말하는이는 누구나 異地勝蹟에도임이 記錄된바와가티 男少女多를 들어말하는것이 普通이므로 한번도 가보지 안은이가운데는 마티 女子만 살고잇는 神秘스러운女子國인것가티 興味기픈想像을하고잇는이까지 잇게된다

그러나 이點에 關해서는 일직 말한일도 잇거니와男子가女子보다 數字上으로多少적은것이 事實이지만도그보다도 外形上 顯著하게一般에게 女子가 만타고보여지는 理由는 도리혀 아래와 가튼事實에 基因함이라고 보는것이 올흘줄로안다

市場에를 가도 적은것은 여페 끼고 무거운것은 동에 걸머진 분주한 장꾼이 女子가 만코 바테를 가도 괴로운일 일은제업시 終日토록 勤勞하는이가 도한女子가 만코 길을 가다가도 무거운 짐을 힘겨진女子를 만나면 一便 놀랍고 一便은同情心이 일어나서 男子는 길을 비켜주지안흘수업다 이보다도 훌륭한 波濤가무섭게뒤끌키로 自古로 有名한濟州바다에서도『ㅋウ』이라고하는 뒤웅박外에는 아무런武器도 안가진 이女勇士들이 百名乃至數百名식隊를 지어 놀고 [illegible] 이만흔 [illegible]도 몸의 重要部分만을 가리운潔 [illegible]이 整然한 行伍를 嚴守하야 所定의 바닷속 길고기끈 그속을 일제히 업슴하야 샅샅치 뒤지고 모조리 잡어내는것이다 마치 물에서 사는 물새처럼 맘대로 떠서 이물결에서 저물결로 구비치는물결을 타고 이리저리 다니며 물속에 잡아넬것이 잇는것만 보기만하면 번개가티 몸을뒤처 물우에는 두다리의 힘발이 잠간보이는듯 사람은 숨희 안보히고 외로히ㅋウ만이 물결에밀려 이리저리 불리고잇다 이리하야 보든사람은 이리로도 나 저리로 돌까하야 四方을 살피는동안에 四五十秒가 지나면 물우에 나타나게되나니 同時에 물우로는 긴휘파람소리가 퍼지며 물결오는것이니 이것은 오래동안물속에서 참엇든呼吸이 急하고 強하게 뿜어나오는 괴로움이 가득석긴 哀調의 表現일것이다

이와가티 濟州島의 女性은 市場에서 直接 홍정하고 바테선 힘껏 勤勞하고 바다에서도 勇敢하게 活動하나니 이事實을 女子가 언제나 房안에서만 가친듯이 잇는곳과 比較하야본다면 土地의 肥瘠與否며 生活의環境關係도 影響될것이지만도 보는이로하야금 特別하게 눈에 떠일것이 事實이라고 생각한다 家庭에선 主婦가되여 어린애기 生産養育하고 박게나선 生活維持費를 벌어드리어 男便을 돕나니 家族制度上으로보나 家庭維持上으로보나 共同責任을 느끼는點과 自尊心을 奮하는點에서만도 퍽 조흔現狀이라고하겟다 何如間 濟州島의 女性은 이섬에 잇서서 數字的으로 만타는것보다도 實際上 重要한 活躍을 하고 잇는것이 事實이다

李馬銅氏 個人展記

鄭玄雄

東京서나와서直後 넘치는覇氣와 熱情을가지고 華麗한活動을하다가 그後 沈默하야잇던 靑年李馬銅兄이 今番 突然히 四五年以來의 沈默을 깨치고 五十餘點이라는 膨大한作品을 世上에뭇게된것은 李馬銅兄으로서의 거룩한 일이요 同時에 이것을 기뻐하는 마음은 홀로 나만이 아닐것이다.

그의 그동안의 沈默은無爲한沈默이 아니엿다 다만 對外的으로 나타나기를 暫時遁避하얏섯슬뿐으로 그는도리어 內面的으로 充實하기를 圖謀하면서 沈思하고 苦悶하고不遇한條件과 싸우면서 非常한 努力을 繼續하얏다는것을 알수 잇슬것이다 여기에잇는어느 作品에서도 이러한足跡을볼수잇고 그의執拗한 努力과라오르는熱情은 그것이아무리적은 小品일지라도 粗忽이하기를許容하지안햇다.

靑馬는 純粹하고 率直한自然의 稱美者요 自然을 몹시히 사랑하는 詩人이다.

그는 對象을 까다롭게 選擇하지안는다. 그에게는 視覺에드러오는 森羅萬象의 그어는모도 그림이되지 안는것이 업고 그것이 한 아무런興味도업는 언덕、보잘것업는 들판이라도 그는 큰感激을가지고新鮮한 原色에가까운 色彩로써 이感激을 畫布우에 옷는다. 그의 自然에對한 至極한 사랑은 들에핀 이름모를 한떨기꼿에도 미치고 길가에 깔린 雜草조차 無心하게 버리지 안코려한다

그는 사랑하는自然을 自己의조그만 主觀으로 冒瀆하려고 하지안는다 謙遜하고 慇懃한 態度로써 對象의再現을 努力한다

그는 繪畫에서 抽象的 觀念的인것을 排擊하고 레오리를 必要하지안코 모든編否을 輕蔑하면서 구태여 조그만奇巧를 弄하지안는다.

그는輕薄한 단디스트도아니요 메단티스트도아니다 따라서 그의 作品에는 纖細한 神經質的인것이업고 無理로 怪異와 新奇를 標榜하지안코 그것은 끗까지 穩和하고 誠實하고 素朴하다. 素朴한속에 明朗한面을 가지고 一見 弱氣가 적은것 가튼면서 洗練된 一種의 熱情을 內包하고 잇다.

다만이熱情을 正面으로 對象에 쏘지말고 一段 避해서 서오는 無意識으로 流暢하게 表現됨을 通過시킬것과 熟練에 흐르는 못끔을 警戒하는것이 조흘것갓다.

『雨後의漢江』의 對象의 正確한 把握과 老熟한 筆致 『꽃다발』의 重厚한 灰色의

本報 當選作家短篇리레ー

[illegible]『金■』[illegible]『안개낀』[illegible] (六月一日부터 五回까지 [illegible]) 까리리에서

晴曇 (十五)

車自鳴 作
崔根培 畫

차권이의 보고를 들은 종중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기에 골몰햇다.

『그래 무슨 방책이 업겟까』

『읍에서 들리는말은 게덕이가 땅값을 우리산판사에 이삼천씩 더주겟다는 모양이든데요』

『그래ー만석이가 이삼천을 더밧기위하야 판다면 그돈을 우리가 물어주지!』

『이천씩만 더해도 육칠천원은 되는데요』

『기왕 그놈의 땅에 처넌들바에는 깨끗이 먹어너코보지……우리소를 팔오면 배여원은 될터이니!』

유구장은 섞이가서서 초련만섞이가 더반들여는 돈과 금융조합 이자를 가펴줄 작정이다

『아니 소마저 팔어버리면 농플은해서 뭐하겟다구 소를판다는거유!』

김호장에게 도망가호부러는아무일에도 착관하지안흠 치서가 소판다는말에 펄쩍뛴다.

『그러킨하지만 초련 밧등에뜨거운 볼부러 꺼가며 쫄바게……』

이말을 듯고잇던 유조시는 『그까짓 종중을 몰라보는 놈에게 사정은 해서 뭘해…』 하고 흥분을한다.

유구장은 누가 뭐라든지 막론하고 유존에 유일한 재산인 소를파러서 초련만서이게 갓다주고 사정해보기를 주장하여오는장날 소를 팔기로 결정햇다

이날밤 치서는 한잠도 이루지못하고 이런생각 저런생각하기에 밤을 꼬바 새웟다. 무엇보다도 만주로 갓슬듯시픈 서분이가 매일밤 머리에 떠올라서 치서를 괴롭히엿다. 수건으로 머리까지 동여매고 매상을 치던 치서는 새벽녁에 무슨결심을 햇든지 새날 한울동입할 한마디 업시 치셔해 잇섯다.

다음날이 신천장 장날이엿다.

이날아침 유구장은 오양깐에 매여두엇던 소가 일허젓다고 동리를 헤매이며 차저다녓다.

그다음순간 자기아들 치서도 가치 업서진걸을 알엇슬때 유구장의 머리에는 회오리바람처럼 어떤 불길한 예감이 휘엿다. 유구장은 땅이 꺼지게 목직한 한숨을 지웟다.

헤여나 도라오기를 기다리던 치서의 소식은 며칠이 지난후에도 막연햇다. 치서의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 유존도지를 배게덕이가 계약햇다고 불려왓다.

유구장은 치서에대한 분리를 못참어서 『엑! 그놈의 자식까지 유존을 못살게할셈은!……』하고 애원써 되뇌이엿다. 이말을 듯고잇던 유조시는

『만석이놈의 행실이 떼 고약한 놈이지!』

하고 분개해서 이를 부드득간다.

『그러나 엎지른물을 주서담을수는 업스니 앞일이나 생각할게지요!』

하고 차권이는 흥분한 유조시와 유구장을 위로한다 뒤이어또차권이는

『아무러튼 우리가 죽지안는한 내년농사를 지어야조! 그러니 만석형의 한 행동은 고약하지만 소작만은 그냥답에 게떡이게 넘기도록 부탁합시다!』

『아ー이제 또 그놈에게가서부탁을해?』

『안그러면 별수잇나요』

『그래 차권이는 이제 만석이놈에게가서 부탁할용기가 잇는가?』

유조시와 유구장도 흥분을햇스나 압날의 생활문제를 신중히생각해 보앗슬때는 그흥분도 며칠이못가서 풀어젓다. 차권이는 미욱한체하고 만석이게 넘겨추어가 소작권은 달어서 넘겨추기를 요구햇다. 그러나 유존의 이 마지막요구도 계약당서까지 말이업기때문에 소작권을 떼여주기로 계약햇다고하여 몰려버리고 말엇다.

『아니 떠나다니?……』

유조시는 자기를 차저온 춘식이와 마주안저 여야거 끄페놀라는 말이다.

『글세 그리니 여기잇는대야배념에부칠 농퍼도 업는데 별수잇나요! 치수배와 독친배상종을 며칠전에 자리를 잡으려 떠낫는데요!』

『그러킨하지만ーー자꾸 떠나들만 가면 어쩌겟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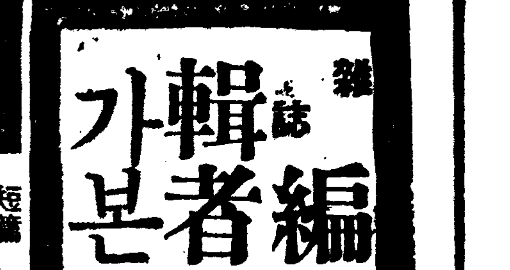
『할수업죠 시재 먹을게업스니 큰거리로가서 노동품파리라도해먹는수박게요ー』

유조시는 이말에 거가막혀서 『아무러케나 하게! 다들 떠나가게! 떠나! 나혼자 유존귀신이 될테니!』

하며 분개하여 호다닥일어나 박그로 뛰여나갓다. 유조시는자리를 못잡고 저므러가는 마당까를 서성서성 거닐며

『구월산 하라버지도 무심하지!』하고 원망하며 구월산쪽을 넘엄시 바라보고잇섯다.

노픈듯 야러보이는 저녁하늘에는 몃백마리의 가마귀떼가 야주 호터저떠서 까욱! 까욱! 까까!하고 동리가 떠나가게울며 유존상공을 휘슬고 남헤갓다 (六)



雜誌編輯者가본
朝鮮文壇側面史
『創造』時代回顧……金東仁
『朝鮮文壇』時節……方仁根
『開闢』時代回顧……朴英熙
朝鮮特產品展覽會目錄
表紙……崔根培

六月의創作
短篇小說 憧憬 (鄭玄雄畫) 鄭飛石
中篇小說 明暗譜 (崔根培畫) 嚴興燮
長篇小說 天下太平春 (金熊超畫) 蔡萬植
시나리오 圖生錄……柳致眞
歷史小說 帝星臺 (鄭玄雄畫) 金東仁

課題設問 宋錫夏、李克魯、李秉岐、高裕燮、蔡萬植、柳致眞、金煥泰、鄭仁澤、白信愛、尹崑崗、方仁根、金南天、韓雪野、林學洙、金台俊、張文卿、金 億、朴英來、文仁任、嚴興燮、李 一、崔鳳則、金文輯、姜敬愛、金晄燮、李石薰、安懷南、徐光霽、林 和、李孝石、辛夕汀、毛允淑、金東煥、白 鐵、白 石、(無順)

山頌 文……李殷相 畫……鄭玄雄
늡의神秘 文……李孝石 畫……崔根培

支那語講座 第一回 張志暎
▲都市對抗蹴球大會 後記……高鳳梧
朝鮮風俗特輯
傳承노리의由來……宋錫夏
朝鮮의端午風俗……靑吾
娛樂室 ▲사랑占치는法 ▲깽追擊께임 ▲毒瓦斯

世界大劇場街風景
桑港의劇場街 朴慶浩
淺草劇場街 金來成

連作野談 金花八枝 (第一回) 申鼎言
閉鎖說이잇는 蘇聯領事館……徐元出
東西妖婦奇話……[illegible]相璨
世界珍奇國의奇風俗……李龍潭

京城 散步場로맨쓰
三淸公園……盧春城
南山公園……朴魯甲
俳優設問

朝光
六月號 定價四十錢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朝光타임스 讀者에게無代進呈

畫報 朝鮮鄕土藝術 ▲漁火 ▲無情 ▲圖生錄
珍奇의世界 動物園風景……一記者
▲現代的茶房……玄民
▲散文『샘』……毛允淑
▲사랑의日記……芝由
長期戰下의大衆生活……李健赫
內亂의西班牙……溫樂中
正米市場問題檢討……蔡丙錫

畫家·彫刻家의 모델座談会
出席人士 金復鎭 具本雄 金煥基 鄭玄雄 崔根培 成大勳 金來成

事變下의 우리小工業 ①

廿年前엔 떡장사 ―至今엔年賣上高廿萬圓臺― 奮鬪成功한製菓店

朝鮮의工業은 同胞經營의것이엇든 狀態에잇섯스나 資源의 開發과內地資本의 誘導로新興工業勃興의 好機運이 到來하야 近年大工場의 新設과 其規模擴張等日進月步하는것은 躍進朝鮮工業을實證하야 欽賞하는바이어니와 그러나 그러라고 大工場進出에만 滿足할수업는것이오

手工業的工場의 存在意義가 아직 이저질것으로 家庭工業에 包含되는 部門은現在에잇서서도 工業中比較的重要한 役割을하고잇다 即 七億六千萬(昭和十一年中、産業局調査)한 朝鮮工業生産中家內工業이 二億三千萬圓을 占하고잇는 點을考慮하드래도 發展해나가는 大工場工業에 伴하야 家庭工業도 發展해가고잇는것이 事實이므로 家庭工業의研究는 今後더욱必要하다고생각한다 都市와地方을 不問하고 家內工業을 振興케하는것은 現在는勿論 將來 더욱發展할可能性을 多分히가지고잇는것과 좃더나아가 生産增加及製品規格의統一等의 目標를세워 工場工業에 極히接近하거나 或은 同部內에드러가잇는 工場手工業의一部도 考慮치안을수업다 그래서 어려한見地下에 家庭工業的小工業部門에對하야 各等層別로巡訪하야 其實情을알어보기로하자

먼저訪問한곳은 東大門市場 안에잇는 咸興煥商店인데 지금으로부터 廿六年前 菓子라기보다는 왜떡이라고부르든때에 製菓를 시작하야 지금에 이르럿는데 그때도 왜떡장사가 만햇섯스나 모두 中間에 다 업서지고 그때하던사람으로 남은것은 이곳뿐이라한다 其當時에는 麥粉에다가 砂糖을넛코 반죽을해서 구어낸것도 넘모나 맛이조타고 잘팔리던것이 內地의 大資本을가진 製菓會社들이 本格的으로 朝鮮에 進出하야 大正十年頃부터는 울굿불굿한 色紙나色圖으로 包裝을하지안흐면 조흔것이 아니라고해서 팔수업시 종이로싸고 곽에다 넣케 되엿다고한다。

처음 시작할때는 二百圓資本을가지고한것이 지금은 年賣上高 十八萬五千圓에 達한다는 이製菓店의 工場은 男工 十三人、女工 廿一人 合三十四人의 職工이 繁忙하게 일하는 工場에서 三馬力의 發動機械一臺를노코 하고잇다 그중은 工場안에서도 大資本을 가지고하는 內地의 製菓會社에서 만드는 品物이거의 大部分을다 機械化하엿다고 하는바 물에다가 砂糖을너어가지고 그것을 얇은鐵板우에다가 부은후에 그鐵板을 불로 가열케하면 엿물이 굳어지면 그것을「롤—란」에다 너코 돌리면 나오는데 아직도 完全하게 굳어지지안엇스므로 굿거진後 切斷해가지고 市場으로 賣出한다 이리게하루에 麥粉五俵、砂糖二袋의 原料로 製造하는 製品은 大量生産하는 大會社의 製品과 어떠케競爭하느냐 勿論 競爭은할수가업다 오직 歷史를 자랑하는곳이니만치 서울에서 몃十圓을 資金삼아 하는小商店에서 直接와서 사가는곳이 만흐며 또代金前拂하는곳에 賣하는일도 잇다는데 外交員을 두어 地方販路도 擴張하려고 꾀하기는하나 別로조흔成績이 나지안흠으로 傳統的販賣方法 그대로 一貫하고 잇다 하며 今回事變關係로 因한 큰影響은업다고 한다 店主도 말하는바와가티 始終이如一하게品質本位로 製造販賣하고잇는것은 事務室壁四面에걸러잇는製菓品評會賞狀이 證明하고잇섯다. (寫眞은「가라멜」만드는 光景)

正租를放賣함이 農家엔더욱有利

農村에선再考할問題

朝鮮에서는 農民이 正租인대로 放賣하는 習慣으로부터 精米工業의 發達을 促進하야 精米工場에잇서서의 白米에의 一貫作業을 高度하게 發達시켯는데 最近農家의 覺醒、特히 昨年度의 農作으로부터 精玄舂가 良好하기대문에 農村의 正租搗精業이勃興하고잇서 今日까지와는 精米工業過程의 分裂逆行의 情勢를示하고잇다 元來農家가 正租대로販賣함이 조흔냐 玄米로해서販賣함이 조흔냐하는 問題는簡單히 論斷할 問題가 아니요 要는農民의 覺醒如何와 關聯하야 決定할問題로 現在의 狀態에잇서서는 農村에서 正租搗精을한다하더라도 賃搗이 만흠으로 오히려 正租대로 精米業者에 放賣하는편이 經濟的으로 有利하다함은 疑心할수업는듯하다

戰時體制下의 스·파工業大進展

輸入統制로將來有望

我國에 잇서 스테이플·파이버工業擡頭의 契機는 昭和十一年五月의 日濠問題의 突發이엿다 周知하는바와가티 濠洲가 大幅의關稅引上을 實施하엿슴에 對하야 我國은報復手段으로 通商擁護法을 發動하야 濠毛不買를斷行, 羊毛는南阿, 南米, 新西蘭等으로부터 分散買付하야 어울補케하엿는데 同時에 羊毛代用으로써 스테이플·파이버를 使用하자고 主唱된것이다 當時의商工大臣小川鄕太郞氏等은 率先하야 이를强調하엿다

그後, 日濠會商은 大體로解決되엿스나 我國스·파工業은 이때에 發展의基礎를 세운것이다 即人絹、紡績、毛織、絹紡等의 大會社는 압흘다투며 스·파製造에 着手한것이다 그러나濠洲問題가 解決되어 羊毛의輸入이比較的容易하게되고 또 스·파製品이너무幼稚하엿기때문에 需要는 擡頭치안핫다

그런데 今回支那事變에 直面하야 國際貸借尻調整의 觀點으로부터 不得已棉花、羊毛輸入을大削減하지안흐면 아니되게되어 그代用品으로써스·파는積極的으로强制的으로使用케되엿다. 如斯히하야 스·파工業은 只今와서는 光榮한 纖維工業中에 잇서 唯一한『時局産業』인 榮譽를 獲得하야光輝잇는 前途를 約束케된것이다

스·파의 製造原理는 거의 人造絹絲와 갓다. 即 纖維素(主로팔프)를 化學的處理로 溶解하여 여러가지 工程을 經하야製造하는것으로 纖維素의 溶解方法如何에 依하야 뷔스코—스法、銅암모니아法、醋酸纖維素法等에 나눌수잇다. 그리고 이를原料인 苛性曹達、硫酸、二硫化炭素其他 藥品은 모두國産品으로充足할수잇다 다만 팔프만은現在海外로부터 이를輸入하고잇스나 이미國內自給計畫도 樹立되여 蓄積增産을 進行하고잇스므로 約五年後에는 自給의域에達할것이라고 觀測된다. 이리하야 國際貸借尻調整의 觀點으로부터 스·파工業의 助長은 極히必要한것이다

그러나 玆에하나인 代用品스·파를奬勵하는데에 矛盾이잇다 이것은 時代用品인스·파가 棉보다도 高價라는것이다 이는棉花의 豊作으로 棉이十五仙臺로부터 七仙臺에로 約五割暴落한反面 팔프는 供給不足으로그反對로 一封度十四、五錢으로부터 二十二、三錢에로 高騰한結果 스·파를奬勵하는데 難點이생기게된것이다 例하면 스·파絲와 綿絲와의 生産原價를比較하여보면(四〇番手單絲百斤當)

스·파絲 八一圓五〇
綿絲 六四、二五

이와가티 스·파絲가 十七圓二十五錢高價이다 그러나 이를 貿易勘定上으로보면 스·파편이 有利하다 即輸入原料代는 原價에對하야 스·파絲二十七%、綿絲八十四%로되여 前者가 百斤에對하야 二十二圓의 海外支拂에對하야 後者即綿絲는 五十四圓의 支拂勘定으로되여 大端한相違가잇다

▲政府의積極的助成

이리하야 物資調整、國際收支調整上으로보아 스·파工業은 紡績、羊毛工業의 代替産業으로써 積極的으로 助長할性質의것이되엿다

이미 政府에서는 이러한觀點으로부터 臨時資金調整法에 依한事業資金調整標準에잇서서 이를(丙)으로부터 除外하고 生産力의擴充의 餘地를 與하는同時에 纖維工業試驗所의 組織을 擴充하야 技術上 研究指導에 當하야 或은 스·파奬勵委員會를 設하고 그普及奬勵에 關해 研究하는等 諸般準備를 整備하고잇다 또輸出入品 臨時措置法에 基하야毛製品에 對한 混用規則等이 施行된것等은 周知하는바와如하다

以上과如히 政府의 積極的奬勵策과 相俟하야 스·파工業의發展은 驚異的으로 進行되어 世界第一位의 生産國인 地位를占하는것도 不過 一兩年을 지나지안흘것이다. 萬若 豫定과如히 現在의 增設計畫이 遂行된다면 今年度에잇서 世界第一位가 될수잇다 스·파工業이 代用工業의 域을 버서나 內外에 顯著한發展을 하는것도 時日問題이다. 또 今年末의 各社스·파 生産設備能力(計畫完成後)을 示하면 如左하다 (日産能力、單位噸)

出雲製織	一〇	新潟人絹	二〇
日本레이온	一〇	人造羊毛	一五
日本人纖	三	日本부른즈	三
日曹人絹	二〇	日淸레이온	二〇
日東紡	三〇	紡機製造	一〇
東邦人纖	一〇	東洋紡	四〇
東洋레이온	三	東洋絹織	三八
東京人絹	五五	豊田光棉紡	一
鐘紡	三五	大日本紡	三
太陽레이온	三〇	倉敷絹織	二〇
福島人絹	二五	帝人	一〇
富士纖維	一〇	旭벰베르	四〇
錦華人絹	六	明正레이온	二〇
新興人絹	五五	昭和人絹	一〇
新日本레이온	一〇	日出紡織	六
計	六六		

重要鑛物奬勵金

選鑛、鑿岩機、採鑛에補助交付

今年度總額六十三萬圓

重要鑛物增産令은 五月十二日에公布되여 大體로 六月初旬부터施行할려이라하는데 本令의實施와同時에 産金奬勵金 交付와 同樣으로 金以外의 指定鑛物 水鉛、重石、亞鉛、鉛、銅、니켈、螢石、重晶石等의 選鑛設備、鑿岩機、探鑛에도 奬勵金을 補助하게되엿다

其奬勵金補助額은 今年度에잇서서 鑿岩機十萬圓 選鑛機二十萬圓 探鑛二十三萬圓을 豫算하엿는바 探鑛은아직도 手掘과 機械掘이 잇스므로 手掘의水平坑은 一米에十圓 竪坑은 二十圓 機械掘의 水平坑은四十圓이라한다 그런데探鑛補助는 從來에잇서서 手掘만은 補助하여왓든바 機械掘까지 補助하게되는것이므로 其申請은 四月二十日까지마감하엿스나 選鑛鑿岩은 六月末日까지요 螢石은추番追加한것이니만치 探鑛도六月末日까지 申請을받기로되엿다한다

煙草作付面積

一萬九千五百町步

實收七百萬貫豫想

專賣局의 本年度煙草作付反別은 米國種 三千百九十二町步 朝鮮種 一萬五千三百九十九町步 內地種 九百七十町步 合計 一萬九千五百六十一町步로 前年에比하야 七百七十町步의 增加를示하얏는바 本年은 苗의 生育狀況이 順調로써 病虫害도 업고 米國種은 本月末까지에 朝鮮種 內地種은 六月上旬부터 中旬에 移植될터인바 現在의 生育狀況으로보면 本年度實收豫想高는 七百萬貫에 達하리라한다

三陟麥作大減

【三陟】三陟地方今年度麥作豫想高를보면 大麥은 作付面積 二萬七千三百九十三反步에 二萬七千一百八十五石으로 이를 昨年度의實收高에比하면 一萬四十六石의減收를보이고잇다

山林課長會開催

事變下林政討議

湯村農林局長訓示

今日 玆에 道山林課長及林業主任官各位의 會同을煩거로히하야 當面한重要問題에 對하야 意見을聽取하는同時에 所懷의一端을 述할機會를 어든것은 진실로欣快로여기는바이다

今回事變에際하야 어데까지던지 長期戰에善處하야 所期의戰果를 엇기爲하야서는 國家의重要資源을 確保하고 國際收支를調整하야 國民經濟의健實을 圖함이 가장必要한것으로 이런意味에잇서 我國重要資源의一인 森林의 開發培養에努力하야써 木材의國內充足을 圖하며 兼하야 國力의根源인 農山村의 健全한發達을期할것을 痛感하는바이다

諸位는 總督府로부터 屢屢聲明한바에依하야 時局의重大性을 的確히 認識하고 時艱克服에邁進하는同時에 事變에必要한 物資供給을 圖하고兼하야 事變後의恢復에要할 資源培養에 努力하기바란다

생각컨대 朝鮮全土의 七割三分을占하는 林野를 整備하고아니함은 治水上、産業上重大한關係를有할뿐아니라 交通、衛生、風致、民心의淳化等各方面에 미치는影響이 甚大한것은 只今새로 多言을 要치안는바로 始政以來鋭意森林造成과經營의 合理化에 努力한結果 漸次山野의 景觀이改良되고잇는것은 진실로 同慶不已이다

그러나 治山事業의 前途는아직遼遠할뿐만아니라 從來의施設은 主로國土保安上 見地로부터 荒廢林野復舊에 重點을 둔것이나 近時各種産業의 進展特히纖維工業의 勃興及金、石炭等地下資源의 開發에 伴하야 木材需要가 갑작히增加하엿기때문에 一層森林資源의 培養을圖하야 各種用材需給에 一層緊要하게되엿다 그우에이는 時局이終息하고 아니하고間에 國運發展上益益重要性을 加하는것으로 鋭意斯業의 發達에努力하야 將來木材의需給上遺憾업기를 期하지안흐면 아니된다

總督府에서는 如斯한趨勢에鑑하야 爲先昨年九月朝鮮林業開發株式會社를 設立하고用材林의造成을 行케하기로하고 또今年度以後二十個年計畫을세워 要存國有林野의 未立木地散生地의 造林을 完成하기로하엿데 다시民有林에서도 積極的으로 林力의涵養을圖하고저 民有林指導方針의 改訂又는 用材林의 造成等에對하야 鋭意準備를 進行하고잇는바이다

그런데 玆에戒心할것은 民有林野의 現狀은 蓄積이極히非薄함에不拘코 近時木材需要의增加에伴하야 目前의利益에 眩惑되여 濫伐을敢行하고 林利의保續을等閑히하는傾向이잇스며 或은火田의濫耕、落葉、下草의濫採等에基한 林野의荒廢又는 地力의減退를誘致한 地方도不少한事實이잇서 治山治水上甚히寒心에不堪하는바이다 即此等에對하야는 伐採指導의 適正을期하는同時에 必要가잇는것은 勿論이나 倘今後에도特히다음事項에留意하야 林業施設의 遂行에一層努力하야써 積極的으로 林力涵養을圖하야 森林收穫保續上 遺憾업기를期하기바란다

一、用材林의造成

從來의森林經營은 燃料林造成을主眼으로 한것이나 近來用材需要가益益增加하야거의 底止할바업는趨勢에 鑑하야 今後에잇서서는더욱用材林造成에 對하야도積極的으로 奬勵하려고 생각한다 前年度來實施하고잇는 民有林野利用區分調査에 잇서서는 이點에關하야 特히考慮하야 그適成地區에 對하야 利用上區分을 附하기로하엿다 그리고此等은眞實로國家的見地로부터將來用材林이되게함이 得策이라고 認定되는區域을 明白히하야 積極的으로그造成을 企圖하려고하나 이外公有林、寺刹林과 如한것도各經營者의 立場으로부터 될수잇는대로 用材林造成에 當케하고 또農家에 必要한 小用材와 如한것은 漸次各地方에 自給策을 樹立시키고 또鑛山業者에 對하여도그經營을 保全할수잇는限 坑木備林을 設置시키는等 各各그 地方事情에 따러用材林造成에 邁進하기바란다

二、赤松林의施業改善

赤松은民有林野中林木의 大部를占하야 木材供給上의 關係도不少한데 그取扱方法이 不適當하기때문에 이미生育不良에 陷入하고 又는 形質劣惡한者 多하야 이를그대로 保育하여도 良材를得함은 困難하므로 前進하야그更新에對한 一定한計畫을 樹立하야 天然造林의 適正을期하는同時에 積極的으로 人工植栽를行하야써 全林의生育을 促하며 또 落葉採取及 過度採枝의 弊害를 矯正하고 極力林力의 恢復을 圖함이 緊要하다 赤松은普遍的樹種이요 또 天然更新에依하야 比較的容易하게 造林의目的을 達할수잇는 關係上人工植栽를 避하는 傾向이잇서 自然年年植栽本數를 減하고잇스나 不確實한 天然更新에 依함보다오히려 成績이 確實한人工植栽가 조흔境遇가잇다 植栽苗木과如한것은 今日의 民度에잇서서는 共同苗圃를 設置하고 部落民自給自作의 方法에 依하는것도 所要하다고밋는다 赤松의 [illegible] 障碍가 되는것은 各地方共 落葉採取의 陋習으로 道에잇서서는 그取締에 努力하고 잇스나 元來落葉은 細民唯一의 燃料라고도생각되므로 只今 急激히 全面的으로 이를禁止함은 그影響하는바不少하다고미드므로 地方事情에따라 漸次 그根絶을 圖하기爲하야 研究하기바란다

三、農用林野의施設擴充

林野를 所有치안흔 多數農家에對하야 農用林産物의 供給을容易케하기爲하야 農用林地를設定한것인데 本施設은 各地方이모두 急히實施를 熱望하고잇스므로 될수잇는대로 速히 그施設擴充을 圖할必要가잇다 그러나 이는唯獨 官의施設만에 依치말고 될수잇는대로 各自自發的으로 그施設을 進行하도록指導하기바란다 各個에잇서 林地購入 又는借上을하며 或은地主로하야금 耕地附屬의 農用林野를 設置시키는等 方法을取하야 極力農用林産物增産에 努力하게하는同時에 그合理的採取를하게하도록 一段努力하기바란다

四、部落을中心으로한 愛林의助長

民有林野의 森林取扱의 改善及 保護의徹底에對하야는 地方民의 自覺과 協力에 依하지안코서는 그目的을達하기 어려우므로 部落을中心으로한 愛林稧又는保護稧等의活動을促하야 濫伐焚口改良、牛馬生飼奬勵及樹苗圃經營等을 可能한限 部落을中心으로하야 이를實施하게하기바란다 由來朝鮮에잇서서는 昔日부터 鄕保相助의良風美俗이잇서 此等慣習을勤勞精神의作興及 共同觀念의涵養上極히 必要하다고 생각하므로 社會奉仕日을設하야 地方에잇서 가장急을要하는 速成林又는 農用林의設定을시키는等 實生活을 通하야 一般에愛林觀念을 기피너허주기바란다

五、砂防事業의實施

砂防事業에對하야는 周知하는바와如히 昭和十二年度以降十五個年間에荒廢林野의全部에對하야 이를實施할計畫下에 着着進步中으로 諸位의努力에 依하야豫期以上의成績을어더 治山治水上顯著한 效果를올리고잇스나 諸位는 一層責任의重大한것을 了得하고 成績擧揚上遺憾이업기를期하기바란다 그리고 各道에서는 總督府의 內示計畫에 準據하야 管內荒廢林野에對하야 施業의 緩急을考察하야 道內全般에亘한 實施計畫을 樹立하야써 將來事業의 進行上齟齬가잇지안토록 留意하기바란다 또輓近諸物價의騰貴、勞銀昂騰에따러 豫定의 事業進行上困難을 招來할境遇도豫想되므로 施工法의 改善及能率增進等에 留意努力하야 이에備할 必要가 極히緊要한바 一面本事業은 그效果를將來永久하게 期待하는 關係上 工事가 粗雜하게되지안토록 留意하야써 本事業의 效果確保上遺漏업기를 期하기바란다

六、國有林野의處分

國有林野의 處分에對하야는今後處分을要하는者 約八十二萬町步中 內五十萬町步는 朝鮮林業開發株式會社에 貸付할豫定임으로 一般에 開放할것은約三十二萬町步를 남길뿐인데 此等林野는 位置又는 林況의顯著히 不良한 不要存林野로 各地에 散在하고 또利害關係者가 有한等 事情에依하야 處分困難者又는 所謂小面積의者로 大部分을占한다 이를에對하야는 勿論本府에서도 鋭意處分의 進捗을圖하고잇스나 道에서도 總督府의 方針에 順應하야 整理의促進을圖하기바란다 또旣往의 造林貸付地에對하야는 貸付期間이 滿了하야 長年月을經過하나 아직도 造林에 成功치못한者 或은事業實行에當하야 그地方의 從來慣習을無視하고 入山料又는 小作料等을 徵收하는者가잇서 紛議를釀成하야 造林成績이 不振하는者 不少한듯이 認定되므로 此等에對하야는 監査及指導에對하야 一層周到한方法을 講究하야 造林貸付의 目的達成에 努力하기바란다

以上은 林政上當面한重要事項에對하야 所懷를述한것인데 各位는今日의 時勢의 要求에對하야 一層認識을기피하야 地方實情에 適合한各般施設을 進行하야 所期의 成果를엇도록 研究努力함이 肝要하다 即本會同을 開催한 所以도또한 이點에 잇서 各位는充分胸襟을開하고 隔意업는意見을 開陳하야 本會同으로하여금 가장有意義하게하도록 切望하야 마지안는다

咸北特産가고由來

會寧燒

咸北의特産物로 由緖가깁고 古典的風味를갖고 滋味豊富한商品에 會寧産으로世上에 有名한『會寧燒』가잇다

其製法은 獨特한技術에依하는것으로 數百年의歷史를 가젓고 形態와色彩도 朝鮮産의것과는 相異한데 宋代의 唐瓷와彷彿한點이 만타 特히淸雅한 情緖 素朴한 氣品은愛陶家들의 絶讚하는바이다

其由來를 一瞥하면 距今千百年前에『渤海』로부터 紫甕盆이라는釉藥을 使用한陶器를 唐文宗皇帝에 獻上하엿는데 그珍奇한逸品에對하야 賞讚이 藉藉하엿다云云」의記錄이『杜陽雜編』에잇고 또 世宗大王의實記『地理誌』안에도 會寧에 優秀한陶器가産出한다는 文獻等여러곳에잇서 自古로 會寧陶器는 有名한것이다

原料의陶土는 郡內에無盡藏으로처혓는데 中年에斯業을 賤業視하야 輕視해나온關係로 不振狀態에잇던것이 崔晃誠氏의 精力的再興工作으로 다시世上에 나오게되얏다

製品은火鉢、茶碗、皿、德利等의 實用品及花甁、菓子鉢、抹茶碗等의鑑賞陶器로 其類數十種에及하야 海內外의絶讚을 博하고잇스나 다못愛惜한點은 大量生産이困難하야 注文에 一一히酬應키어려웁다는 事情이다 大量製造하면 貴重한特點이 俗化되기쉽다는 崔氏의苦衷을 기다릴것도업거니와 生産이 制限되는데서 鑑價는 加益發揚될것이요 咸北의 代表的特産으로 길이 尊重히여길것이다 (其一)

때아닌寒冷으로 農作物凍傷

三水郡一帶憂慮

【咸南支社發】三水郡에서온 情報를보면 最近 各農作物의 發芽期를 當하야 地方의 氣溫은 適히 寒冷하야 마치 九月이나 十月의 氣候를 聯想케하는 怪候가 繼續되고잇다한다 이러므로 이地方의 農作은 冷害를입어서 發芽를하지못하고서 約간 發芽되얏다고하드래도 모다凍傷을입어서 全滅되는 狀態에잇다고하는데 지금부터 동지一帶의農作은悲觀할狀態에잇다고한다

仁川府에서 柿、杏栽培計畫

【仁川】仁川府勸業係에서는 管內九百餘戶의 農家에 二百九十圓의 補助金으로 柿、杏栽培를 시킬計畫이라는데 柿는氣候風土에 適當하고 杏은美化工作에適當타고 一戶當十本內外로 勸誘하리라는바 이것이實現되면 四五年後에는 相當한收入이되리라고하는데 柿、杏은四十年前에富川郡守가 奬勵하엿다가 失敗한일이잇슴으로 今般에는 案을具體的으로 세워서 農家에相當한收入이되도록하리라한다

水稻種子改良의 三個年計畫樹立

六萬四千町步서五萬八千町步로

咸南産米의完璧期코

【咸南支社發】咸南道에서는 今年度까지 水稻種子改良의 第五次採種畓設置를 終了하엿는데 昭和十四年度부터 다시三個年의 第六次奬勵計畫을세우고잇다 이計畫을보면 現在水畓面積六萬二千三百二十二町步 改良畓面積二千七十七町步 合計六萬四千四百十町步中 九割一分이나되는 五萬八千八百十町步를 改良面積으로하야 昭和十四年度에 採種하야 良種을 植付시키기로되엿다 이것이 實施되면 咸南의産米는 良의完璧을 期하게될것이며 種子는 大[illegible]하엿다한다

忠南春蠶掃立 四萬餘枚突破

【大田】忠南道에는 春蠶掃立枚數四萬八千六百六十六枚로前年度에比하면 約四割의增加한다

雄基龍水湖에 牡蠣養殖場計畫

道內自足을目標코

【淸津】咸北道水産試驗場에서는 牡蠣(굴)增殖이 有望한데 着眼하야 雄基邑의 龍水湖에 牡蠣養殖場을 새로 만들計畫을세우고 基本調査를 마첫는데 年年 貴해지는 牡蠣需要의 激增을 보는 이때에 不拘하고 道內生産이 極히 少量에 不過하므로 이번은 道內自給自足을 目標로 出發하야 好成績을 본다면 어어서 雄基 名産品으로 만드러 對外的으로 進出시킬 方針이라하므로 今後의 成績이 크게期待되고잇다

淸州煙草乾燥場 入札에回附

【淸州】淸州市民의多年宿望하고잇든 黃色煙草再乾燥場設置問題는 關係當局과 有志의熱誠으로 宿望을達하야 淸州邑內德町에設置하기로決定되엿는데 지난五月十七日午前十時半頃指名競爭入札者에게 西原事務所에서 入札하엿든바 모두豫算超過이어서 一旦다시入札에附하기로되엿다한다

鑛業協議會

洪城에組織

【洪城】지난二十七日洪城邑內洪州面事務所에서는 忠南道內洪城、保寧、唐津、瑞山、禮山等五郡鑛業者百餘名이 會合한後 非常時局에 處하야鑛産業을 一層擴充할것과 鑛業用諸物品은 共同購入하야 現下非常時經濟에 適合하도록共同提携키爲하야 廣川黃鐵鑛山을中心으로 地方鑛業協議會를 組織키로한後散會하엿다 前記五郡에 散在한鑛區는全部一六百十餘區로各郡別로보면如左하다

洪城 五二 保寧 四九 瑞山 一六 唐津 一七 禮山 二六

三個月畜牛取引 二百五十萬突破

畜牛咸南의賣買狀況

【咸南支社發】咸南道農務課의調査를보면 지난一月부터 三月까지 畜牛賣買狀況은 開市日數一〇一五回에 出場頭數는 四五、五一八頭 그중取引된畜牛는 一〇七三頭로 價格이 二五六一九、一四〇圓〇二錢의 巨額에達한다 昨年同期에 比하면 賣買頭數는 別差異업스나 價格은 高騰하야 百五十萬圓이나激增하얏다

어쩌재? 이렇한적은분량으로도 잘듯는가

肝油는「먹기거북한것」혹은「비릿이 胃腸에 부담을일으키는것」이란것정을 一變시킨時代가 왓읍니다 지금까지에는 억지로 비린내나는肝油를 한그릇 두그릇……혹은 포도알만한大粒의 肝油球등을 十餘個식이나 먹어야되야 그고통과 설증은 말할수없엇으나 여재는 그런걱정이 조금도 없게되엇읍니다 즉 近代化된 一粒肝油하리바면 眞珠만한 적은알로 하로에 불과三-四粒의 服用으로 충분한효과를 얻을수잇게된 까닭입니다 그러면 엇재「하리바」는 어렇게 少量으로도 效果가잇느냐 하면

첫재로 지금까지에 사용되여온鱈(대구)肝油에比하야 百倍前後나 濃厚한 비타민A와D를 천연적으로豐富히含有된高級肝油가原料로되어잇는까닭에 그用量은 數十分之一의少量으로충분한效가잇읍니다

둘재로 이高級肝油를 消化가좋지못하든제라진의 가푸세루를 사용치않고 特許方法으로 油塊그대로를 糖衣小粒으로 만든것임으로써 胃內에서 속히녹아버려 잘吸收되기때문에 아무염여가없읍니다

셋재로 在來의肝油는 가장귀중한 비타민의 含有量이 달너서 正確한用量을 정하기곤란하엿으나 하리바는 動物試驗과比色試驗외에 現在 가장正確하다고승인되고잇는 分光寫眞과 放射線寫眞으로 科學的으로 正確하게 더욱均等하게測定하여잇음으로 그렇게적효가잇는것입니다

…以上과 같은理由로 하리바는 在來의肝油의결함과 약점을 모도 보충식힌까닭에 어느분을물론하고 간편히 복용하실수잇어 優秀한 효과를 더욱얻게된약이오니 여러분께서는 하로바삐 服用하여주시사 더욱 건강히되어주시며 병을근치식혀주십시요

一日量 幼兒…一粒 小兒…二粒 大人…四粒

百粒…二圓五十錢 五百粒…十圓五十錢 全道藥房에잇음

적은分量으로도잘듯는 糖衣小粒

東京•大阪 田邊商店

HV-K-34

松竹キネマ 5月30日ヨリ6月5日マデ上映時間表

十三番目の椅子		2•09…3•14	6•35…7•40
ニユース	11•00…11•26	3•24…3•50	4•43…8•09
いろは系圖	11•28…12•50	3•53…5•06	8•12…9•34
永遠の感激	12•55…2•06	4•11…6•22	9•37…10•48

元氣よく皆樣のお客を迎へませう 明治座

五月二十九日부터三日間 ◎東寶時代劇 鬼吉喧嘩往來 監督 兒井英男 主演 羅門光三郞 ◎パ社特作品 ハリウット大通り FOX社超特作 全發聲日本版! 행복의福神 主演 샤리 템플 京城新富町 電(本)五六七七番 新富座

日活 5月29日ヨリ5月31日マデ3日間

情熱の詩人啄木		1•50	6•20
松平外記	11•00	3•35	7•55
銀盤の女王	12•05	4•40	9•00

(ソニア•ヘニイ主演) (每週 京日 朝日 パ社ニユース上映) 黃金座

大每國際ニユース 裏町の歌 主演 水島道太郞 東龍子 伊太利ムツソリーニ賞獲得 アントニオ•チエンタ主演 リビヤ白騎隊 喧嘩大明神 主演 澤村國太郞 原駒子 每日晝夜二回興行 永樂町 本二〇一四 中央館

五月二十九日早朝 特別 滿洲映畫 スパイ戰線を衝く 俠星玄 風流喧嘩侍 電光三九五 優美館

五月二十九日 世界航空戰 大學ノ人氣者 電光一三三三番 桃花劇場

水亂一過·各地被害狀況
慶北道內各地에는 交通線거이杜絶
農作物被害도不少

【慶北支社發】지난이십구일이후 경북지방일대는 지리한 강우로 말미아마 각처에 농작물의 피해가 상당하며 하천의 범람한 곳이 불소하야 대구(大邱)를중심으로한 도내자동차선로는 대구―현풍(玄風)、대구―포항(浦項)、대구―안동(安東)간 이외에는 지난이십팔、구양일부터 두절되엿다는데 이십구일저녁까지도 강우는 의연계속중으로 일반농가에서는 크게우려하고잇다고하며 교통이두절된 주요선로는 다음과갓다고한다

大邱―慶山間　大邱―星州間
星州―高靈〃　英陽―靑松〃
永川―和睦〃　安東―[illegible]〃

全南道內交通 繼續復舊中

【全南支社發】기보=지난이십칠일래로전남일대에 쏘다진 폭우는이십구일 오후에야 겨우개엿는데 그우량은 각군을 따라서 각각다르나 여수군(麗水郡)일백오십〃미리〃를 필두로 목포팔십〃미리〃로 도내각지 각자동차선로는 광주목포(光州木浦)간을위시로 거의불통이되엿섯스나 비가 개인후다시 교통은복구되엿고 영산강(榮山江)수위는삼십일오전일곱시현재에 육미돌오십의 증수를보이고 잇서 영산강 유역의 농작물은 물론도내각처맥작에도 피해잇슬것으로 도농무과에서 조사중이라한다

慶州釜山間도 自動車가不通

【慶州】수일래의 호우로인하야 경주부산간(梁山經由)의 자동차교통은 이십구일오후부터 두절되엿는데 삼십일부터 비도개엿스므로 즉시도로수선에 착수하야 삼십일일부터는 다시 안전히개통되리라한다

上溪平野에浸水
苗板과兩麥은全滅

【慶南支社發】어제이십구일 오후부터 폭주하는 호우(豪雨)는 경남일대의 하천등 범람과 도로등이 무너저서 교통이두절되여 방금 공사중이라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양산군양산면신기리(梁山郡梁山面新基里)압상계평야(上溪平野)이십정보가 호우때문에침수되여 모자리와 아직수확하지못한 밀보리등은 전멸상태에빠젓다 이십구일 양산군상북면대석리(梁山郡上北面大石里)문시종(文時宗)의아해 박분이(朴粉伊)(三)는 폭주하는호우를 무릅쓰고 논에나갓다가 휩쓸니게되여 죽엇다한다 그리고 동래(東萊)관내의 피해상황을보면 다음과갓다

▲海雲台―長安間 佐川里 渦川 氾濫하야 自動車杜絶
▲東萊北面老圃―釜山間 梁山을 通하는一等道路의缺潰

新義州內鮮各派의 基督敎徒도團結
神社參拜도決行키로

【新義州】신의주부내 내선각파 기독교회목사(牧師)들은 지난이십일경오부터 부의영정(榮町)의 일본기독교회당(日本基督敎會堂)에모여 지난번경성(京城)에서 발회식을한 조선기독교연합회(聯合會)를 결성하야 신사참배를하기로 하엿는데 선거된역원은 다음과갓다

委員長 宮田熊治 副委員長 尹河英 同 韓景職 庶務委員 洪顯高 財務委員 金有灝 委員 崔明俊 外三名 評議員 白志輝 外八名

綾州小學校落成式

【綾州支局】전남능주공립심상소학교(綾州公立尋常小學校)낙성식은 이십구일 정오부터 거행한다함은 본보에 기보한바잇거니와 당일은 우천임에도 불구하고 현석호화순군수(玄鍚虎)를비롯하야 화순경찰서장 각군도시학 각면장겸농소학교장 지방유지 무려오백여명의 참석하에 신축기성회임원장 주기준(朱基俊)씨 개회사에 개막되엿다는데 현군수의 식사를 대지하야 주위원장 식사 주재성(朱在性)외다섯분의 축사와 축전(祝電)을 랑독하고 드디어 성대히식을 끗마치고 오후 두시부터 연회가 주기준씨사회하에 마음열어 만세삼창으로대성황리에 산회하엿다한다

信營會社社長拘禁
帳簿書類等押收
井邑警察署에서活動

【井邑】지난이십일오전십일시 경 정읍경찰서에서는 최사법주임(崔司法主任)이 형사세사람을 대동하고 정주읍시기리(井州邑市基里)에잇는 주식회사 신영상회(株式會社信營商會)에 출장하야 문부기타현금을 엄밀히 조사한후 사장 류갑상(柳甲相)을 인치하야 유치한후 엄중한조사를 진행중이라한다

어제듯는바에의하면 전기신영상회는 거금으로삼년전에 비료(肥料)주단포목(綢緞布木)해륙산물(海陸産物)미곡(米穀)등의 무역판매로 되엿든바 업적의부진과 경비의 과대로서 주주와 주주사이에 알력이 심하야 드디어 삼년전에 영업정지의 비운에빠젓는데 상업은 영위치아니하면서 미불주금을 회수하라는 현사장측파 미불주금을내지안코 회사장부상의 불미한점이잇스니 감사의 감사를 강경히 요구하는일파와 실로 삼파전(三巴戰)이 전개되여 감사의불신임안등 불상사태를 현출하는일방 섭하여는 주주와의 재판까지하여오든바 드듸여 사직의손에까지 미치게된것은 감사 신용재(愼鏞載)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정읍검사국에 업무횡령배임등죄명으로 사장을고소하여서 일어낫다한다

賞金을獻金

【[illegible]田】운전각회우천대회(運[illegible]大會)에서 영예(榮譽)의 일등상을탄 안주(安州)출생으로 서울거의 매자 정선학(鄭[illegible])을 비롯하야 여섯명이 상한역사(力士)와 [illegible]잇섯다한다

金拾圓二十錢 金[illegible]十圓 申[illegible]五圓 (以上[illegible]) 白玉[illegible]五圓 [illegible]四圓 金[illegible]二圓(以上[illegible])

[illegible]중인 준비중이엇든바 그구체적 방안이 [illegible] 지난이십칠일 오후두시부터 [illegible]에서 [illegible] 오십이명이 [illegible] 규약(規約)회계결과 예산안의([illegible])등 여러가지방안을 [illegible]엿다

鐵鋼統制組合 黃海道도創立

【海州】황해도산업당국에서는 도내에 잇서서의 철공업(鐵工業)의 원료인 강철(鋼鐵)의 배급통제를 행하야 수급원활(需給圓滑)을 꾀하고저 조선세멘트해주공장(海州工場) 조선화약회사(朝鮮火藥會社)사리원 황해공업회사(沙里院黃海工業會社)등을 중심으로 [illegible] 황해도[illegible]

難工事竹嶺턴넬 거이半分竣工
中央線의工事進捗

【榮州】중앙선공사(中央線工事)중의 제일난공사의 하나인 죽령 〃턴넬〃공사는 총사키로오백미돌로서 동서양쪽으로 서로 뚜러들어간지 겨우반년미만인 지난이십일까지 서쪽으로 단양(丹陽)에서 일키로이백미돌과 동쪽으로 영주(榮州)에서 일키로[illegible]를 돌파하엿다는대 이와가티 순조히 진행된다면 불원한장래에 거의준공을 보리라 한다

官民多數參列裡 合同告別式執行

平壤 산서전선(山西戰線)에서 세계전사상에서 그유를보지못할 무훈(武勳)을세운 고고전중좌(故高田中佐)이하 ○○주의 합동고별식(合同告別式)은 소기(小磯)군사령관열석하에 신불양식으로 삼십일 오전아홉시 삼십분부터 ○○에서 극히장엄하게 집행되엿다

식장정면제단에는 용사의 유골이 안치되엿고 그좌우에는 ○○군과 조선총독 기타각방면에서의 조화(弔花)가 식장을메웟다

정각에 의장병의 유량한 국가(國歌)의 나팔소리로 천경해 리에 식전에 드러가 신식파를 식으로 진행되는가운데에서 소기군사령관、총독대리 수야(水野)정무총감 상내(上內)지사 시야(矢野)부윤 부내중등학교대표 조 동 학교대표등의 조사 조전피로가잇슨다음 의장병의 조총제례(弔銃禮)의 봉전 제주의인사가잇슨후 옥관(玉串)봉전하고 [illegible] 폐식하엿다

(寫眞은 合同告別式場)

大邱 북지전장에서 호국의 꼬치된 사원(四元)중위이하 ○○주의 무언용사의 대구부관민합동고별식(大邱府官民合同告別式)은 지난이십구일 당지 대봉정학교 집회소에서 거행되엿는바 때마침 쏘다지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참배자는 무려천여명에 달하엿다고하며 성의를다하야 정중히 모셧다고한다

萬餘名細窮民中에 資金申請者겨우廿二人
大邱府方面委員의誤見綻露

【慶北支社發】대구부사회계(府社會係)에서는 부내만여세궁민을 구하기위하야 금년도처사업으로 우선 일천원의 빈민구제생업자금(救濟生業資金)을 예산에계상하여 종내이십여명이든 방면위원(方面委員)을 엄약이십사명으로증원하고 방면사업 조성회(助成會)를 결성하여 태양못보든부민들에게 일루광명을 쥬랴고해왓다 이와가티 조성회까지조직한 부사회계에서는 지난사월에 생업자금대부규정(貸付規定)을발표하고 방면위원회를 열고 그대부에 편한 의견을타진까지하여 부내어 심사구의 방면구역을 각각담당한 위원이 세궁민의 상세히조사하야 그생활상태와 생업자금의 대부에편한 준비를 하기로하엿든바 기보한바와가티 지난삼십일에 일제히 자금대부방을 수효는 겨우이십이건이라 하여 시내만여세궁민 파이에서 이러케되지안는것은 기중에서 이만가되지안는것은 기

[illegible] 이미 생업자금대부규정(貸付規定)을 발표하고 조사해본결과 수입전부터 그부근을 폐회하는 (?) 변인의 증언이라한다 [illegible]에 의하면 방면구역이십사구중에서 신정(新町)칠성정(七星町)남산정(南山町)일 어 삼 오 륙 칠 팔의 구개구역밧게 어라고하니 이구개구역이외에는 생업자금의 대부를 요하지안을 세궁민도이라면 몰수거니와 그런것이 만약 다른방면에 모조리방관하는 말미아마생긴일이라면 중대한 사회사업상의 한사회문제라고한다

重責마튼方面委員 查定粗漏가原因
"生業資金은貸金業이아니다"

이와가티 부에서도 모든재정상의난관을 돌파하여가며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예산에계상한 불파일천원의생업자금대부에 엇서 부내만여빈민을 가진데도불구하고 불과이십이명의신청밧게 업다는것은 누가생각하여도 모순일이다 이제듯는바에 의하면 세궁민의 구제를하기위하야 그네들을 항상접촉하고 지도하고 또한그네들의생활여편심울가진 방면위원중에서정하여 철저히 그들의구역내의 빈민의조사를하여 자금대부를알선을 하여야할방면위원이십사명중에는 그활동을 민첩하하지안는 유감된일원도 업지안코 또한 그활동으로 말미아마 대부를 바다야할 세궁민의 수효가 아나마 이자금 대부이후 일견한기일이 경과되여 그회수에지장이잇게되면 자기책임으로 생각하여 그를 가진 위원이업지안아서 불원부터 그대부를입는 선지안는 그들의생각을가진 위원이업지안아서 부에서는 비교적부진한구역이 잇든것이라는 대변다

府公營課長 談

말하자면 방면위원은 그구역내의 구역이 빈민들의 사정을 잘알고 원이얼마로 방면위원이 부에서 부흥지도[illegible]를 세궁민의 공고한 일반부민도 어 형용다시하고 이후방면위원들 의 선처를요망하여 마지안는다 고한다

생업자금은 대금업이아님니다 그와가튼 그릇된 생각은 단연 버려야 할것입니다 그러면 부에서 생업자금의 대부를 받는이는 그들자신과 또그가족들이 구제하겟다는 생각을가지고 자활할수잇도록 방면위원이나 세민이 한만히 이러한의미에서 다 진사람이래야 방면사업에 힘쓰는 여희들이 잇는이가 잇다는 자격을 구하라고 자금을대부하는 것이니 이러한의미에서 대부를 하지안는다면 모도잇지마는 하여야 의위가 잇겟지요 사업하다는 의의가 나는방면위원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바라기로 하겟습니다

各雇主側도諒解 人夫優待案決定
就業時間賞與制度設定等等
道에선基準勞賃도引上決意

【咸南支社發】기보=토목공사청부업자와 공사판감독들을 초청하야 함남도청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는 상오열시부터 시작하야 입을엿다가 오후[illegible]시간 상여(賞與)제도등실시에 대하야서는 청부업자측에서 동의하야 오는[illegible]약속하얏다고하며 원래가 어떠한 고로[illegible]의견이 다대하다 가는대로 토공에대한 각각 일당노임을 그만큼 지불할것이라한다 [illegible] 전에 ([illegible])과 위해 세는각자 기회에 잡 할수도 정도 [illegible]

적당하면 방면에 [illegible]민족 (治) 해 하야 생활빈자의 지상 [illegible]도 조 [illegible] 제([illegible])를 따라진 미단이잇다 전남 담양군 진상면 지원리 (光陽郡津上面[illegible]) 제칠호(第七號) 에사는 최 빈곤하야 살도구식으로 지내는 그 녀 지난식구임 봉행이도 그

의남편이 사망하엿스므로 저상 에 국난한 정경을 저평불인 회(旨郞婦人會)가부들은 각각성 의를 다하야 자기들의 성의에 미치는대로 물질을 수합하야장 의에 당케하엿스므로 일반은그 부인회의 미거에 칭송이 자자 하다고한다

旨郞婦人會美擧

【[illegible]】세상의 어진일은 극도로 가난하여 생활이 곤란한 일인개 정을 충동부에 요구하고 금에 재정난을하여서 중재의구 십오전을 약십천내외의 인보로 의 만리에 예제의 옛다고한다 그 고 도당국에서는 기독[illegible] 그리

江原道水產總會
六月中旬溜井里에서

【春川】강원도 수산회(水產會)에서는 금번 총대의원(總代委員)을 개선하엿는데 륙월십육일 오전열시고성군외금강면온정리(高城郡外金剛面溫井里)에서 총회를 개최하게 되엿다는 바 이에 부의사항(附議事項)은 다음과 갓다고한다

◆江原道水產會[illegible]收入方法[illegible]
◆江原道水產會[illegible]規定의件
◆江原道水產會[illegible]規定의件
◆江原道水產會[illegible]의件
[illegible]의件

五人[illegible] 羅南署에就縛

【羅南】함북경찰서 고(警務課)함남 야자(?)에 도난 범조전신(?)되 에 어떠 [illegible] 최근에 어떠 어떠 지난이십이일[illegible] 무난속하고있다 관동수일동안에 조선전기(朝鮮電氣)의 수선변전소 ([illegible])에서는 [illegible]수선 [illegible]명 오〃권〃 쥬우자 거래와 어떠 [illegible] 수선수자에서는 수선수 [illegible] 동안에 조선[illegible]도 [illegible] 그중에 지난이십일 [illegible] 니는바 수범서고 네명은 [illegible] 어이 장고처분을 [illegible] 엿나 [illegible]다 해놋 ▲同 [illegible] ▲同 [illegible] 葉 (?)

時艱克服을爲한 平南府尹郡守會議
卅日부터三日間開催

【平南支社發】장기전에 각오를 공고히하고 시간국[illegible](時局認識)에 대한 국민정신총동원의 참뜻을 저성하는 평안남도의 부윤군수회의 (府尹郡守會議)에서는 지시사항(指示事項)과 주의사항(注意事項)의 내용은 다음과 가튼바 모든가 시난을 극복하는 진정한 안정과이며 개회중에서 일층[illegible]작 평양신사에참배 평군의 무운장구를 빌엇다

개회벽두 상내(上內)지사의 국민정신 총동원하의 시국인식을 강조하는 훈시(訓示)가 잇슨다음 현하의 드리간 드는 삼십일의 에는지[illegible]신(訴願)(?)잇슨 [illegible]지(諮問事項)들을 ([illegible]事項)등 [illegible] 이 잇 엿 의 진술 회의를갓지 못하엿다고한다

◇指示事項
一、地方選擧事務에關한件
二、國民精神總動員運動에關한件
三、生活合理化의徹底
四、貯蓄奬勵
五、軍事援護
六、勞務의需給調整
七、改正敎育令의趣旨徹底
八、國語의普及
九、國民體育의振興
十、靑年訓練所의普及改善
十一、私立學校의改善刷新
十二、生業報國田畓設置
十三、農漁家更生指導部落中堅人物의訓育養成
十四、產米改良
十五、畜產의奬勵强化
十六、水稻漁船救濟事業
十七、鑛業用杭木의需給狀況
十八、[illegible]林野利用에依한[illegible]林
十九、開墾에關한件
◇注意事項
▲[illegible]의[illegible]及[illegible] ▲米穀[illegible] ▲[illegible]에伴하는[illegible] ▲自作農[illegible] ▲[illegible] ▲生業[illegible] ▲[illegible] ▲國有未墾地[illegible] ▲更生[illegible] ▲[illegible] ▲民有火田整理 ▲共同[illegible]의[illegible]施設 ▲各官公署[illegible]의[illegible] ▲[illegible]에[illegible] ▲畜生[illegible]의[illegible]

慶北各地에서講演 內地視察한儒林團

【慶北支社發】경북도내각군에서 유림선발하여 내지시찰을갓든 유림(儒林)단일행 삼십사명은 지난이십이일 무사히 동경(東京)대판(大阪)경도(京都)등지를 도라오게되어 각도시를 시찰하고 돌아왓는데 일행이 그시찰에서 늣긴감상을 각각군내각처에서 강연회를 열고 일반에 전하리라고한다

天道敎李鍾麟氏 海州서時局講演

【海州】천도교중앙교회 (天道敎中央敎會) 종리원장 리종린(李鍾麟)씨는 교도들에게 시국인식을 철저케하고저 지난이십일해주군 서석면 서원리 (海州郡西石面[illegible]) 에서 〃시국에대한 천도교도의각오〃란 연제로서 약두시간에궁하야 열변을 부르지젓다

"세멘트"의流下로 鴨綠江白魚減少
水電等各工事의副產物

【新義州】국경의명물로서 천조선에 이름을휘날니고잇는 백어(白魚)의 평년산액은 이만오천원내지삼만원에달하엿는데 금년에들어 돌연사천원이하로 저하되엿슴으로 그간각방면에서 들어온원인을조사한결과 수전공사(水電工事)와 철도공사(鐵道工事)등에서 사용하는『세멘트』의 류하로인하야 압록강백어회고의 철저기 종을보게된것이라하며 방금관계자들은 『세멘트』류하방지대책에 골몰중이라한다

辛正來氏美擧

【月井里】경원선월정리역전(京元線月井里驛前)에서 화신연쇄점을경영하는 신정래(辛正來)씨는 이번새로 설립되는 월정공립소학교(月井公立小學校)에 경비로 금이백원을 요지은내엿다는데씨는 사회사업에는 대소를물론하고 언제나거금을 앗기지 안는다고 일반은 감사하고 마지안는다고한다

便所變死體
病死로判明

【木浦】지난이십칠일 오전두시경에 목포양동 전영흥학교 기숙사변소(木浦陽洞前永興學校寄宿舍便所)에서 연령삼십오세나되는 남자의시체가잇는것을그전소사가발견하고 직시목포서에 계출하엿든바 동서계원이 출장검시한결과 사인은 병사로판명되엿는데 그의원적은 아직잘모른다고한다

甕津東南近海에서 漁船一隻이沈沒
船員二名死亡、六名行方不明

【海州】옹진군용연면동석리(甕津郡龍淵面東石里) 지난이십칠일밤에 그의돌연인이 들에 어선(漁船)이 순위도(巡威島)남 근처 일주 동안 [illegible] 바다에는 일종의 강해저서 그 바다에서 조기잡이하든 다수의 어선(漁船)이 순위도(巡威島)남 면으로 피난중에 순위도상당의 어선한척이 침몰되여 그배에탓든선원 여덟명가운데 두명은시 체(死體)로 발견되고 여섯명은 행방이모연하야 소관주재소 (甕津署)에서는 그행방을 찻는중이 라한다

預金事件送局
永興署서取調段落

【永興】기보=작년사월경부터 본적을 개성(開城)에 두고 현재 함남영흥(永興)에와서 일보이 십전의 고리대금업을 하다가자 금이 부족되자 전기 고리대금을 재용한사람 오십여명을 유인 으로 당연히 개인예금업을시작 하여 그것으로 자금조달을하여 고리대금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영흥경찰서에 체포되여 이래엄 중한 취조를바더오든황보(黃某)(?)는 그간취조도 일단락되엿 스므로 어제일 드디어조선지 은행령위반 (朝鮮貯蓄銀行令違反)으로 일건서류와함께송국되엿 다고하는데 금번이사건은 일반 대금업자들에게 적지안흔충동을 주는동시에 큰 경종이되엿다고 한다

炭田增產計畫따라 運搬施設도整備
平南運輸勞組에快報

【平南支社發】국책에 따라평양 진 사동무연탄(無煙炭) 운반조합은 평양부근일대의 탄전(炭田)은 비상한지장미돌파어가지고 말처 연안탄전(江東炭田)의 오동탄전(江東炭田)의 삼만여톤과 대보(大寶)탄전의 삼만여톤의 증산계획을수립하 되어 계획을 [illegible]

용하는 선탄운반(船便炭)에대해 서도 강동탄전(江東炭田)의 오 만톤을 위시하여 삼신탄전(三神 炭田)의 삼만톤대보(大寶)탄전의 삼만톤과 합계십만톤의증산계획하 에서 운반을 하기로되엿스므로 작년의 실적운반을 한데비 하여 금년중에는 삼십만톤이내 지사십만톤의대량수송을보게되 여평남운수노동조합(平南運輸勞 組)에도조호경기를 보이게되엿다 ... 되엿다

진 오동기선에 적이셔비 (積込 設備)를하기로되여 기계의 구입 에 진력한결과 기계의도착으로 보아 금후까지에는 준공을보게 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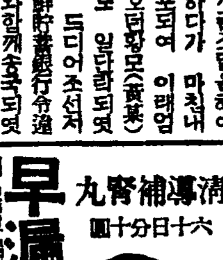
아모리 탄전에서 출탄량이 가 보아도 적어항까지 운반하는 가을까지 운반계가 시설되는 선석정(松石?)이 [illegible] 금년중에서 평남종로(平南中央道)로 대량의운반을 여평남운 (大同江)을 리 하는외에 대동강 (大同江)을 리

木材運搬臺車 機關車와衝突

【宋乙】지난이십육일에 동철림업소(東拓林業所) 마의산작업장 에서 목재운반대차와 기관차가 충돌하여운전수지용빈(池龍凡)파 조수 림귀갈(林貴甲)두명은 무참히도 현장에서 직사하엿다는데 그원인은 대략연결에부주의 한데서 라고한다

外科 肛門病科
入院室全部洋房 レントゲン設備
京城府樂園町一三五
醫學博士 朴昌薰
電光一四五二 (醫師 招請)
包莖手術每日施行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株式會社 漢城銀行
頭取 林茂樹
支店 京城東大門、西大門、鍾路、明治町、水原、開城、大田、平壤、海州、長湍、仁川
出張所


早漏防止
性器强大藥
男子性器短小와 早漏에百發百中!!
淸導補腎丸 六十日分十圓
太星莊藥品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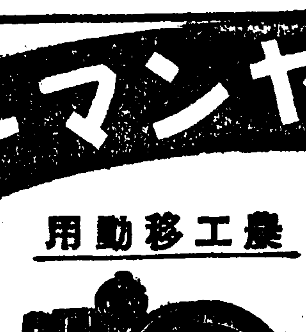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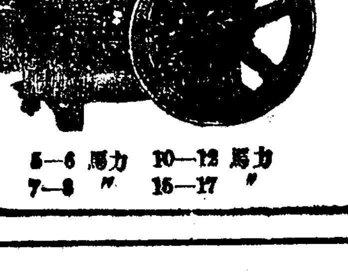
松の實 ミルクキャラメル
京城菓子株式會社

アイスケーキ機 冷凍機販賣
小松電氣商會出張所
オカモト キヤシンク門

社員招聘

말더듬이
納言專門矯正院
朝報案內
男女社員
自轉車
ツヅキ陳列所

物催のり日一
盛夏用紳士服着荷 ―一階賣物―
夏の婦人帽百態 ―二階賣場―
京城本町一丁目
ウボオカ
本電 ②六 四八ロ 三ミヤシ

世界唯一 小型純冷始動
ヤンマーデーゼル
農工移動用

据付小動力用

大量製産 在庫豐富
本機特長
一、燃料費極メテ僅少
二、純冷始動ニシテ
三、回轉円滑
四、作業能率倍加
五、輕量ニシテ移動容易
六、サービス万全
甲位入選
於農林省小型ヂーゼル比較審査 昭和十三年二月二十四日發表
入選機 S型四馬力 H型五―六馬力
株式會社 山岡發動機 京城支店
本社・大阪市北區茶屋町

ビッグ・ゲーム
RKO超大作
巨猫傳
戰士の道
6月1日 封切
黃金座
全米選拔選手軍が…の壯絕的チーム・ワークを…再現する。近代人の見落す事の出來ない特作映畫です。

經濟解說

米穀減産憂慮 農村勞働力對策이 肝要

物價高와그對策 (35)

麥、綿、絲類、羊毛、棉花等의國際商品으로써 直接重要品에 對하야 關係업는것에 대하야 一般的으로 必要한것이다。먼저 食料品에對하야考察하기로하자。

◇

重要한것도업시 一般國民의生活에잇서 食料品가티 重要한物資는 업다。例컨대 우리는 映畫鑑賞을그만두고 化粧品을節約하고 衣服도 헌것으로견딜수잇서도 쌀이나 菜蔬업시는 하루라도 生活할수가업다 即食料品은 우리에게 잇서는第一次的 効用을 가진物資이다。從하야 食料品의 節約은 거의 不可能에 가까운일이니라 그需給關係의 惡化、價格의騰貴가 國民生活에 주는影響은 深刻하고 全般的인것이 아닐수업다。

食 料品은 모두自給自足이 可能하고 外國으로부터 輸入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것은 하나도업다。그러데 我國에잇서서는 日常生活에不可缺인 食料品의 價格이 騰貴하는것은 我國의物價問題를 觀察함에잇서 看過할수업는 重要한 特徵的事實이오 我國經濟의非常한强味이다。

英國、英國等의諸國은 我國과相異하야 食料品을 輸入에依하는狀態이므로 歐洲大戰當時 外國으로부터의 食料品輸入에 支障을招來한結果는 食料品의 騰貴를招來하고 社會人心에 큰不安을 주엇스므로 드디어傳票制度라는 極端的國家統制手段을 取한것은 周知의事實이다。그러데 我國에잇서는

多 幸히 食料品은 大體國內에서 需給이均衡되어잇스므로 海外로부터의 遮斷의憂慮가 업다。

騰 貴의 傾向이 업는것은아니다。昭和十一年三月과의 比較에잇서 總指數는 三割一分三厘의 急騰을 示하엿슴에 對하야 內地米는 一割六分二厘로 約半分의 騰貴에 不過하엿다。이가티 我國에잇서서는 食料品의 自給自足이 可能하고 近年에잇서서도 時局의影響을바더 價格의 騰貴를 招來함이 比較的적어던것은 最近의 物價騰貴에 對하야 一般民衆이 比較的 安定되어잇는 最大原因이다。萬若我國의 食料品이 輸入品으로써 軍需品을 사기爲하야 食料品의 輸入을 制限하던지 食料供給을 不安케하기爲하야 軍需品의 輸入을

特 殊的原因에 依한 一般物價水準의 騰貴에 比하야 一般國民의 生活을 脅威하는 것이 적엇다。그러나 國際收支의 關係上 重工業에 對하야 原因으로 惡化되고 重工業品과 國際商品의 需給關係가 惡化되는 事態가 發生하면 그影響은 實로 恐怖할만한것이 될것이다。어데잇서서 食料品物資의 需給의 將來에對하야 深甚한 注意를 하지아니할수업는 理由가 잇다。我國의食料品中 가장重要한 地位를 占한것은 말할것도업시 米이다。米가 一般國民의生計費中얼마나 支配的인가는

檢 討하여볼때에 說明할바도업거니와 米의 生産은 이적어도昨年度까지는 時局의 影響을바더 減少한傾向이 업섯다 即內地米의 十二年度生産高는 六千六百三十一萬石으로 前年에比하야 百餘萬石의 減少에不過하고 一昨年의 五千七百三十二萬石에 比하면 八百八十萬石의 增收가되어 事變에依한 勞働力不足에 基因한 大減收를 招來하리라던 豫想은 杞憂에終하엿다。또朝鮮米의 十二年度生産高는 二千六百七十九萬石으로未曾有의 激增을 示하고 臺灣米도 九百二十三萬石으로 平年作을 示하엿스므로 現在까지의 米供給에는 조금도 不安이업고從

昨 年은 七月이요 事變이 勃發하엿고 그러나 今年度는 米價도 比較的安定을示하야 다。그러나 今年度는 果然 그러케될가? 昨年一年은 勞働力이 減少되엇스나 今年度는 그보다도 나중이엇다。從하야 勞働力으로 減退되는것이 아닌가。

如實히 反映될것이 아닌가。 歐洲大戰當時의 實例에依하면 戰爭에依한 勞働力減退로 交戰國은 모두 農産物의 減收에 苦惱이엇고 그結果 英國에서는 一九一六年에 二萬七千人의 兵士로하여금 各地의 收穫事業을

援 助케하엿스며 佛國은 同年 五月 獨逸서는 國內의兵役에 堪耐치못하는男子、婦女、老幼를總動員하야 一九一五年以降 馬鈴薯及 野菜를 栽培케하엿다 勿論 歐洲大戰當時의 交戰諸國의狀態와 我國의 現狀과는 반드시 同一論이아니나 先日

府農村勞働力長會議에서 報告한 것과가티 勞働力減退가 生産에 影響을 받엇으면 農村에가서 벌서 生産力이 減退될것이다。그러기에 이러한 壯丁을 失한 農村의 生産力減退가 多少라도 減少하야 補償하는것이라고 할것이다。

況農村勞働力의減退는 出征兵士에 依한것이 아니오 軍需工業에依한 農村人口의 吸收에 依하야서도 이러난다 그結果로써의 勞働力不足以外에 馬匹減少、肥料高騰도 堆肥減少、肥料高騰에 依한 農村購買力減退等의 事實을 생각하지아니할수업을것이다。

天 候關係가 在來의程度의 對策만가지고서는 價格騰貴를 免하기 어려울것이라는 危險이잇다。勿論 小麥、魚類、菜蔬等도 大體 米가티 『코스트』增加에 依한 價格上昇傾向에다가 勞働力不足으로부터오는 供給의減少가 漸次價格騰貴에作用케될것이다

米穀政策再檢討

[長期戰下의食糧問題重大視]

總督府서도對策講究

今年度의 米穀需給은 어떠年度의 半을지나서 大體 內外地通算一千萬石에 가까운持越米가 豫想되는터이나

一、內地는 時局에依한減收

二、朝鮮도 昨年과가튼 大豊作을 반드시 確保할수업는것等의 事情으로 全國總收量은 幾分減收를難免이겟고 從하야 明年의 需給은 大體 警戒할것이라는 觀測이有力하다

本年의 米作이 果然얼마나 減收될지는 지금으로부터 豫想을不許하는터이나 總督府에서는 天災에依한 異常減收等萬一에備하야 代用食研究를 進코잇는데 本年의 作況如何로는 米穀政策을 內外地壹通하야根本的再檢討를 要케될것으로서 이에對한 政府와 總督府의 對策이注目된다한다

朝鮮現在의農形

米、麥、棉作豐作

今年의 農作物은 米作을비롯하야 一般으로 降雨에依한 用水潤澤으로 目下모두 順調인成育狀態를 示하고잇고 豐作이豫想된다 即如左하다

▲米作‖本年의 畓은最近頻頻한 降雨로 用水가 各地方이모두 潤澤하야 例年六月中旬부터 開始되는 移秧도本年은早期인京畿地方을 비롯하야 이미開始되고 例年보다 十五日乃至二十日이일는狀態이다 苗代는當初日照不足으로 伸力이 例年에 比하야劣하나 農事試驗場의調査에依하면 그러不良치안코用水潤澤에依하야 자못順調인成育을示하얏으로 期待된다

▲麥作‖全南地方에降雨不足으로 發芽狀態가 不良하야一時憂慮되엇스나 其他의 地方은 比較的 良好하고 作付面積도 前年보다 二割增加이다

▲棉作‖例年旱魃傾向인 四月下旬부터 五月에至하야 今年은用水가 潤澤하고 發芽가 非常히 順調로써 一般이 豐作을豫想케하며 特히移入의 制限에依하야 朝鮮棉이 貴重視되는 本年은 그豊作이 期待된다

米는 直接政府가 配給에當하고잇어서 充分한用意가잇다 問題는 今秋의生産額인데 적어도平年보다 [illegible] 地方의 冷害에對하야서는 最善의施設을다하고잇스므로 今秋의生産額의確保에는 充分한自信이엇다 그리고 現在의公正米價에對하야 一部最高價格의 引上을要望하고잇스나 國民生活을不安케하지안는見地에서 政府는絕對로 引上치안을方針이다

輸出月額도新記錄

對外貿易躍進

五月出超三百卅萬圓

躍進朝鮮의 貿易은 去益好調 總督府發表 五月中의對外國貿易槪算調査에 依하면

▲輸出 一千六百七十萬圓

▲輸入 一千三百三十八萬一千圓

▲合計 三千八萬二千圓

▲出超 三百三十一萬八千圓

으로서輸出月額은 過去의最高位이며今年二、三月에 一千二百萬圓臺를 凌駕하야 未曾有의巨額이엇다

이제이것을 前年同月에比하면 輸出은 六百五十七萬七千圓의激增임에 對하야輸入은百二十萬一千圓의減少로써 前年五月은 四百四十五萬圓의入超이든것이今年五月은三千三百萬圓의出超로好轉되엇다 그리고 一月以降의朝鮮對外國貿易槪算累計를보면今年은

▲日本막네‖日本막네사이트化學工業에서는 三十一日午前十一時부터 南大門通東京火災빌딩本社에서 定時株主總會를 開催七分配當據置當期決算案을附議可決

畜牛再共濟事業

朝農總會서可決實施

◇……豫算二十七萬圓

朝鮮農會에서는 三十一日의臨時總會에서 畜牛共濟事業開始에伴한 特別會計豫算同規定을 決定하얏는데 右事業은 豫算二十七萬九百五十九圓으로서그實施要旨는如左하다

一、事業主體‖府郡島農會

一、共濟範圍‖生後六個月以上의畜牛

一、飼養申告‖農會에牛籍簿를備하고 이에申告케함

一、共濟料‖畜牛飼養者는 特別家畜割로서 一頭에 三十五錢

●賦課

一、共濟金交付‖生後六個月以上十八圓、明三才以上 三十五圓

一、共濟金을 受한者는 代牛購入의義務를負함

一、以上의 再保險機關으로서 朝鮮農會가 再共濟함

一、再共濟料金은 一頭當十八錢으로 右共濟制의 根據로서는 朝鮮內의畜牛數 百四十三萬七千頭에對하야 斃死率一圓四分으로三十七萬圓假定으로서 때때히 『가ー바ー』할수잇다한다

▲輸出 五千七百十六萬二千圓

▲輸入 五千九百六十七萬千圓

▲合計 一億一千六百八十三萬三千圓

▲入超 二百五十萬八千圓으로써 比前年同期累計에잇서輸出은 九百九十五萬二千圓增 輸入은 二百四十七萬九千圓減 入超一千二百四十三萬一千圓의 減少이엇다

入超累計

一月以降

一億五千萬圓

【東京電話同盟】 大藏省發表‖五月下旬對外貿易槪算調査는 如左하다 (單位千圓)

輸出		八六、七四五
輸入		一〇〇、八二〇
合計		一八七、五七六
入超		一四、〇八六
一月以降入超累計		一五一、一一三

本邦對中北支貿易

今後一段明朗化

今後一元的關稅改正으로

【東京電話同盟】 去一月二十一日北支의 暫定的關稅改正에어어서 今回北支、中支臺通하야 一元的關稅改正에依하야 從來의 高率인 排日的支那關稅率은 大體에잇서 一、九三一年의 排日을 加味치안흔 稅率로 復歸하야 卽大體에잇서 大凡半減되엿다 北支에關한限 完全히 從來의不合理가 是正되고 이에依하야 北支中支의 關稅收入이 確保되어 新政權의 財政은 去益堅實性을 加하는同時에 本邦의 對中北支貿易은 今後一段明朗化를 加케되엇다 目下本邦의 對中北支貿易은 復興建築材料와雜食糧品에 限定되고 活潑한商動은 업스며 또 目前으로도 北支中支가 모두戰後의 疲弊로購買力이 乏하여또 中支에잇서서는 現在 背後地에 交通과 上海에는 無稅輸入에 依한在荷가 現在相當의 多量인 關係로 本邦의 此等地域에의 貿易은依然增大하리라고 豫想할수 업스나 中支에잇서서는 어머徐州가陷落되고 漢口도 近間我方의勢力下에 여게될 狀態인으로今後戰局의 進展에依하야 長江沿岸의確保와 背後地의 擴大와同時에北支中支의 治安維持安定과 相俟하야 對支貿易은 漸次好轉할것이期待되며 이미北支中支의 共通한 今回의關稅改正은不遠한將來의 兩政權動向을 意味한것인바 今回의 改正에依한關稅收入其他를로後다서 今後稅率을改正할것으로보인다

中國關稅改訂公表

六月一日부터實施

【北京三十一日發同盟】 中華民國臨時、維新兩政府는 協議한 結果 同時에 國民政府에서 制定한 排外的關稅率을 改訂하야 新稅率을 制定하고 各其 六月一日부터 實施하기로決定、臨時政府에서는

維新政府도

關稅引下斷行

【上海三十一日發同盟】 維新政府財政部는 去五月三日 上海海關接收以來 鋭意檢討中이엇든데 懸案의 關稅引下를 斷行하고 六月一日부터 實施키로되엇다 排外的特 排日을 目標로한 國民政府制定의 것이므로 維新政府의立場으로 보든라도 그改正은 喫緊의 問題이요 現行稅率은 七十二種의 各般에亘하야 任細히 이것을檢討한은 早急히 안되므로 우선 國民政府의 排日關稅採用前後에 成立한 一九三一年에 改正한것을 基準으로서 이에最近北支의 諸事情을 考慮하야이에依하야 北支臨時政府가步調를가티하야 兩政府治下에 諸海關에對하야 名實共히 統一關稅를實現한것은 第三國方面에는도多大한 好感을가지고 엇는바 今回의 關稅改正은 維新政府財政當局이손을대인 最初의 大事業이라한다

府는 三十一日 午前十一時 北京外交大樓에서 改訂稅率을 公表하엿다

關係方面에

總督府에서通牒

오래동안問題中에잇던 中支方面海關 特히上海海關問題가 日英兩國間의諒解成立에依하야 얼마前에 維新政府에서 接收하게되엿다하든 既報한바어니와 此에伴하야 明六月一日부터 上海出入의 日本船舶、積貨物、旅客携行品에對하야도(御用船은除外) 一齊히 維新政府에서 關稅를賦課하게되엿스므로 右에關하야 各施하기로되엿스므로 總督府當局에서는 卅日附로써 各道知事、各商工會議所 其他關係方面에 周知하도록 電報로通牒을發하엿다

○鮮滿商議理事會‖鮮滿商議理事會는 三十、三十一의兩日 釜山商工會議所에서開催 京城商議로부터 伊藤理事出席

米倉在庫減少

米倉의 五月二十八日現在의在庫는 三百十八萬七千七百十四個로 本月十五日보다 約三十八萬個의減少를 招來하얏다 어것은 今後도 繼續하야 漸減傾向을示하리라고보이는데 어것을 昨年에比하면 百二十六萬一千個의增加이다

平作以上確保難

公定價格은不引上

◇…周東農林省米穀局長談

【福岡】 農林省米穀局長周東英雄氏는 去般八幡製鐵所를 訪問하고 同所工場을 視察하엿는데 同氏는 戰時下의 米穀事情에 對하야 如左히말하엿다

長期抗戰下에 잇서서 가장憂慮되는것은 國民의主要食糧問題이다 어에對하야서는 國民生活에 脅威를與하지안토록 價格을 安定시키며 其數量의 確保를期하기爲하야 政府는 모든方法을講究하고잇다 多幸히十一、十二兩年이 非常한豊作으로 現在價格에잇서서나 數量에잇서서나조금도不安을 感치안는다 特히軍用

白國立銀行

公定割引利下

【巴里三十日發同盟】 白耳義國立銀行은 三十日公定割引利率을 四分에서 三分으로 引下할旨를 發表하얏다 同銀行은 去五月十日 白耳義貨의 危機에際하야 二分에서 四分으로 大幅引上하얏든것이다

死藏된五圓金貨를

十四圓三十六錢에산다

金의國庫收集目標코

【東京電話同盟】 彷徨하는金貨여 遺家하라……金의國庫收集을目標로大藏省에서는 一般에 死藏된金貨를사저서 政府키爲하야 近間大藏省令을 改正하고 金貨의賣買를許하야 現行의 公定市勢로買上키로되엇는데 어것은即金再禁止로 金貨의 一般流通이 禁止되고 紙幣로 兌換停止된 圓金貨의 金含有量七分九厘七毛七絲五忽이고 五圓金貨는 (九厘)의 金含有量이 何等關係가업고 五圓으로서引取될뿐아니라 金貨의鑄潰가禁止되어 어것을犯할時는法律로써 三年以下의 懲役或은禁錮又는 一萬圓以下의 罰金을課케됨으로 金貨를死藏하는 傾向이顯著하고 國家非常時인 어때에한라출當惜인이므로 今回特例를設하야 大藏大臣의 許可를得하여 鑄潰할수잇는同時에 金의公定價上價一匁十四圓三十六錢三厘로써 買上하자는것이다

【東京電話同盟】 大藏省에서는今回政府의 金集中의 一環으로서現在外國爲替管理法에依하야 禁止되어잇는 金貨의 鑄潰에 許可條項을加하고 民間에 退藏되어잇는 金貨의 鑄潰를 許키로되엇다 卽六月一日大藏省에서는外國爲替管理委員會幹事會를 開하고 現行管理法에基한 昭和八年第七號省令第一條中『金幣는 이것을 鑄潰하고 또는 毀傷할을不得함』이라고한것에對하야『但大藏大臣의 許可가잇슬때는 此限에不在함』이라는 但書를付하고 金貨의 鑄潰에 許可條項을 設하야 幹事會의 決定을經한後에 外國爲替管理委員會를 開하야 正式決定할것이다

底强保勢

昨朝의 下放低寄로 或은相當한 一押이 엇을가하고 弱氣를 먹은側도 昨日의反高 今朝의續伸으로 市勢의 底强味를示現하는것을 보고는 다서 漫然弱氣的見解를 저질수업다는 氣迷的場面이되여 仕手도거의 形勢觀望態度로 傍觀하고잇스나市勢는 過去六個月동안 或은 外交憂慮로 或은 戰局의避滯로 여러가지 悪材料를 入하야 價位는低下하고 人氣는沈滯하야 마치내買方의 總退却으로 今月初의大奔騰을지어 徐州陷落으로一高後시 賣叩되엇다가 政局安定에反民되고 다시買人氣에回軍狀을보어는等 말하자면 賣方의任意대로 賣叩하다가 最近 新買方의勢力과 對峙하고잇는 形勢이니 이鍛鍊된데로된 市勢를다시 하기爲해서는 必要할것이오 그러를大惡材가 財界基本을 뒤흔치안는限 亦是 低價鍛鍊으로上進할것으로보아야할것이란 說이多하다

取組와그表裏

勿論 環境情勢의 少康에不拘하고 長期戰이 繼續되는데 目前은 警戒를要할 諸事態도업는바아니오 언제어느때 突發事件이起할지도 모른는터이나 市勢가 東新中心으로 움즉이고잇다는것은 곳지금의探算을 中心하는것이아니오 躍進日本의 前途를 買하야두고저하는 人氣의動向에 注目을 가지지안흘수업는데 더욱이나 表面의 取組關係로보면 各地가모두 上延下長으로 마바라가買占하야 實의妙味가엄는것갓지만 其實 그裏面을보면 마바라는 依然 買傾向에잇고 오직 正株로引受할만한實力이잇는 地場有力側들은 거의最初 小口에至한 防戰賣로 始作한것이 著著 資本을繼續하고잇는모양으로 오히려 마바라賣對 地場賈의實際한關係로取組되어잇는것은 市勢前途에 어떤暗示를 주는것이 아닌가생각된다

短期配當落

今三十一日로 短期東新(年七分六厘)一圓四十錢四里 大新(年六分五厘)八十一錢二厘五 朝取(一割四分)三圓三十二錢五厘 朝新八十二錢二厘의配當落이되엇다

株式 揉合裡堅强

今日의市勢 (卅一日)

前場堅强

昨日의 反高後 外電은 南北戰爭記念日로 米國市場은 休會이엇스므로 入電이업섯고 環境情勢의 少康에따라 氣配는 堅調하야 東京寄付은 一円齊高이엇는데 當地는 東新이七分六厘의 配當落으로 四十八圓에 寄付하고 朝新도 配當落으로 三十六圓二에 寄付하엿스나 鍾紡은 二百四十八圓四로 少高寄付한後 稍極買物의 不續으로 少高下를 거듭하다가 大引되엿스나 東新八圓五 鍾紡八圓八로 市勢는 堅强하엿다

後場保勢

後場은 東新四十八圓四錢으로 堅調히 寄付한後 鍾紡一高로 堅調히 保合價를 示現하엿스나 東新九圓三 鍾紡九圓一의高保勢이다가 阪地下鞘로 低價大引되엇다

期米 續落裡納會

前場續落

今朝阪地先限三十一圓八十六錢으로 一丁反高를 擧하고 中은 一圓九十八錢五 丁高로 先限은 三十二圓十四錢으로 四丁低로 寄하고 昨低後阪地에 六節七十八錢까지反落함을따라○七錢까지 下押하엿다가 八十錢으로 少戾하엿 金ㅅ買物이 出하야 七節十錢으로 返戾하더니 結局反正七十八錢을 보고하하고 十錢에 止揚하엿다

發會價로下廻

新甫七月限은 三十二圓十二錢에 發會하야 十錢까지少弛하엿다가 因而騰裡에入하야 六十八錢의 高價를示한後에는 强保合을繼續하야 時日을買하다가 今月末納會에至하야 發會價를下廻하고말엇다 其間 五月一日

國債保合

(東京電話)金融市場에 依然不透明으로 引締氣味이오 株式의 依然不擧로 株式의 堅調로 一般小口買物이 散見되어 期近으로 甲號五分利一回二回四分은 五錢高 佛貨도 五錢引締되고 佛貨四分은 一厘高示하얏다

一回四分 一〇二・三五 佛貨四分 一九七・八〇

今日財界 卅一日

◆米	(單位錢)	今日前場比前日	今日後場比前日
仁川期米先限	三二・二〇	八低	
大阪期米先限	三〇・九〇	二天	
京城白米(上等一石)	三・〇〇	三〇〇	
正租(仁川一等)	一・三〇	不變	不變
白米 FAQ			

◆株	(單位十錢)	今日後場比前日
朝新	三五・二	一〇低
東新	一〇二・五	五〇低
鍾紡	二三〇・五	二〇低

◆商品	(先限單位錢)	
綿絲		
人絹		
砂糖		

稀有의取組高

昨今當地先限의 取組高는 五萬三千四百石이란 稀有의 것으로보면 그取組의 內容을보면 上鞘下長으로 就中實方으로는 金太의 四千六百石을 筆頭로 丸ヮ及 山源의各三、四千石의 網集하여잇스며 賣陣으로는 金ㅅ의 一萬九千七百石의 買物을비롯하야 丸福의九千四百石으로 其他群衆賣物이 鮮居하고잇다 此決戰이 將次何如할지는 모르나 支那事變이 依然繼續될을 보어서는 米價의今後가 그다지 큰暴落이업을것이라고할수잇스나 在米의 事情으로보아서는 前途需給의 不安이엇을것갓고 또는 植付期에 直面된 今日의 天候가 順調로經過할을 보아서 어느程度까지의 反落을 免치못할것도 가티보인다 果然 此大取組의 설마리가 如何히될지아르로 興味津津할모양이다

現在 內地殘存米는 昨年보다의 四十萬石減少로 一般當局을 憂慮케하엿스나 海外의影響을 방지안코 仲買商狀을보이던四井 平壤에 穀物의好關係를 招來하야 苗板의成長이 良好할뿐더러 植付用水도 充分하야 農家의 樂觀을보하며 一方中央物價委員會로서는 아프로 物價의 事實上統制를 할터이라고 方今 蓋謹中임을따라 그餘響은 米界에 波及하야 賣氣騰貴에 그런엄숙하였다

各地新甫豫想

濃厚하다

▲大阪十丁上鞘 ▲東京十丁上鞘 ▲神戶無鞘 ▲下關無鞘ー五丁上 ▲名古屋十丁ー廿丁上鞘 ▲京都十丁上鞘 ▲金澤無鞘 ▲熊本無鞘 ▲大邱十丁上鞘 ▲釜山無鞘ー五丁上鞘 ▲群山十丁上鞘 ▲木浦十丁上鞘 ▲仁川十丁ー十五丁上鞘

新甫發會豫想

二十丁上鞘?

明六月一日에發會될 新甫八月限은 昨年은僅히六丁上鞘에不過하엿스나 普通慣例에依하야 二十丁上鞘로 發會되리라는 說이濃厚하다

(米) 南鳴

……昨今當地先限의取組는 五萬三千餘石이나되는 稀有의 大取組▲이와가티 무섭실마리 자 將次如何히 풀릴지크게注目을要할바이다▲今年은 豐作이오 또天候의 順調로 植付後이 無難할모양이라고 農家는 樂觀▲그러치만 支那事變의 長期化함것은 事實▲今朝丸仁商의 三等米는三十一圓四十錢으로二十丁이나 反落此는 地方의出廻가 比前增加한모양▲何如間 當分上勢難은 不問可想

(株)……今日配當落의 場面도 少落反堅으로 底强味를 示現▲市場의步調는 依然한 一高一低의 浮動으로 低價鍛鍊에 不過하나 말하자면 二番底까지 低落構成한 市勢로 發揮하는때에는 東新百六十圓突破도 瞬息間일것으로 推測하는이어서 勢에醉하야 賣叩를일삼는것은 多少危險이不無▲設或一時低價를 示現하는일이잇더라도▲新低價에로의 低落이업을것이어서 市價?▲押目買의 姿勢로準備를 기다려볼도可?

朝取期米取組內容

中限

◇賣方		◇買方	
天[illegible]			
丈			
丸			

先限

◇賣方		◇買方	
[illegible]			

正米

釜山外는

落潮

京城崩落

好順氣禮讚으로 産地는 永續한 强硬態度를 變하야 忽然正租는 一匣低로投

群山崩落

天候의 前哨戰에 入하야 益益好順과 中央物價委員會의 物價抑制와 蓬萊米의 出廻期로 奧地唯一의 期待언 政府買上實施說도 希望薄이어서 마치내 態度는 軟化할수박게업고 各地淸算도 奔落하야 다시買氣는 冷却되어 市價는二十錢 一等白米一三、〇〇

大邱閑散

一般은 月越待로 沈默하고잇는現狀으로 場面은 當用側의 小口取引散見으로 団穀良三等三一、六〇 四等三一、四〇 一等白米一三、〇〇

釜山反戾

內地買氣는 依然稍極으로 市中에도 商狀을 示하고잇스나 奧地가 先高必至豫想으로 頑强히 推移하고 엇기때문에 市中도 이를牽制할수엄어서 降雨에依한 苗板、麥作念慮로 加하야 市價五錢反戾를 告하엿다 団穀良三等 三二、二五 四等三二、〇五 一等白米一三、一〇

仁川續落

頭上의 好順定期續落을 보고 조금식 賣放하는側도잇어서 內地의 賣行不振과 함께 稀米側이 賣傍觀하야 昨日보다 二十錢急落되어 賣買薄이엇다 ㊀銀坊主三等 三二、一〇 四等三一、九〇

木浦不變

順雨는洪水化하야 淸算奔落으로 近來에엄는 惡化하야 淸算奔落으로 近來에엄는 惡日市勢를 演出하야 結局二十錢崩落이 되엿다 ㊀三等三一、四〇 四等三一、二〇 一等白米一三、〇五

京城物價 (卅一日)

▲白米(一叭、單位錢)

海外經濟 (三十日)

[illegible]		

銀行券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金利・手形交換

◆東京金利◆ ◆大阪金利◆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阪神鰯油◆ ◆日本麥粉市勢◆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東京金銀價◆ ◆金買入價◆

對外爲替

正米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以上朝鮮銀行發表

正租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以上仁川穀商組合 以上京城穀商組合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朝取 金益證券 京城府黃金町三丁目

株式 期米 玉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マルタマ取引店

株式

◆朝取短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東京現株◆ ◆鑑定代引日步◆

期米

◆朝取期米◆ ◆大阪短期取組◆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釜山期米◆ ◆群山期米◆ ◆木浦期米◆ ◆大阪期米取組◆ ◆東京期米◆ ◆日本各場期米◆

生糸

◆橫濱生糸◆